

사상의 기본 개념을 논리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사상의 개념을 단순 암기하는 방법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사상의 기본 개념과 전체적인 맥락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와 자료를 꼼꼼히 체크해서
선택지와 연결시켜야 합니다.

자이스토리는 1등급 고난도로 출제되는
성리학과 양명학, 사단 칠정론, 칸트와 공리주의 윤리의
제시문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단계별로 문제 풀이 순서를 알려주어
개념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훈련을 하게 합니다.

또한, 풀이의 핵심이 되는 ‘단서’를 찾고
단서를 통해 문제를 푸는 ‘발상’과
적용하는 법까지 구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이스토리 입체 첨삭 해설 시스템으로 문제와 자료를 분석하고
정답의 근거와 매력적 오답도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수험장 극비 노트]에는 자주 출제되는 개념을
그림, 도표 등으로 수록하여,
나만의 비법을 더하여 단권화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자이스토리와 함께 한다면,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 때쯤
여러분은 이미 수능 1등급에 도달해 있을 것입니다.

- 대한민국 No.1 수능 문제집 자이스토리 -



 내신+수능 **1등급** 완성 학습 계획표 [30일]

Day	문항 번호	틀린 문제 / 헛갈리는 문제 번호 적기	날짜	복습 날짜
1	A 01~14, B 01~08		월 일	월 일
2	C 01~38		월 일	월 일
3	D 01~41		월 일	월 일
4	E 01~31		월 일	월 일
5	32~62		월 일	월 일
6	63~93		월 일	월 일
7	F 01~31		월 일	월 일
8	G 01~32		월 일	월 일
9	H 01~28		월 일	월 일
10	29~60		월 일	월 일
11	I 01~31		월 일	월 일
12	32~44, J 01~14		월 일	월 일
13	K 01~24		월 일	월 일
14	25~46		월 일	월 일
15	L 01~36		월 일	월 일
16	M 01~32		월 일	월 일
17	N 01~28		월 일	월 일
18	29~56		월 일	월 일
19	O 01~35		월 일	월 일
20	36~74		월 일	월 일
21	P 01~28		월 일	월 일
22	29~60		월 일	월 일
23	Q 01~22, R 01~21		월 일	월 일
24	S 01~27		월 일	월 일
25	T 01~35		월 일	월 일
26	U 01~43		월 일	월 일
27	V 01~26		월 일	월 일
28	모의고사 1~3회		월 일	월 일
29	모의고사 4~6회		월 일	월 일
30	모의고사 7~10회		월 일	월 일



• 나는 _____ 대학교 _____ 학과 _____ 학년이 된다.

• 磨斧作針 (마부작침) -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끈기 있게 노력하면 이룰 수 있음을 비유하는 말)



자이스토리 윤리와 사상 활용법+α

①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기출 선택지로 개념을 꼼꼼히 체크!

- 수능에 출제되는 기본 개념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문제'를 통해 기본 개념을 제대로 익혔는지 테스트합니다.
- **출제** 2025 대비 6월, 9월, 수능에서 출제된 경향을 알려줍니다.



② 등급을 좌우하는 고난도 문제는 “문제 특강”으로 완벽히 마스터!

- 고난도 문제로 나오는 유형과 해당 문제를 푸는 단서, 발상, 적용법을 알려줍니다.
- 간단한 빈칸 채우기를 통해 특강을 읽으면서 함께 풀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③ 개념별 기출 문제 풀이로 수능 실전력을 높이자!

- 수능 문제는 유형이 정형화되어 있으므로 기출 문제를 통해 자주 출제되는 개념과 선택지의 문장을 파악합니다.

④ 최신 연도별 모의고사는 단원별 학습이 끝난 후에 풀어 보세요.

- 실제 시험을 치를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풀어서 자신이 취약한 유형을 파악하고, 시간을 안배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등급컷으로 객관적 실력도 체크)
- 모의고사를 풀 후에는 오답노트를 작성해서 틀린 원인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확인하세요.



⑤ 1등급, 고난도 대비 문항은 특강 해설로 마스터하세요!

- 문제 풀이의 핵심이 되는 '단서', 풀이의 '발상', 문제에 적용하는 법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왜 틀렸나', '시간 단축 tip', '문제풀이 tip'을 통해 실전에 바로 활용하는 tip을 알려줍니다.

⑥ 쉽게 이해되는 입체 첨삭 해설로 다시는 틀리지 말자!

- 정답만 체크하지 말고, 틀린 문제나 찍어서 맞은 문제 등은 꼭 다시 푸세요.
- 해설에 제시된 정답의 단서를 파악하고, 함정, 주의, 꿀팁에 대한 설명도 놓치지 마세요.



⑦ [수험장 극비 노트]로 수험장 1등급 비법을 꼭 챙기세요!

-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핵심 개념과 출제 유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자주 헷갈리는 내용을 보강해서 단권화 노트로 사용하세요.



단원별 핵심 문제 + 중요 문제

동영상 강의 QR코드



- ① 해설의 줄글보다 동영상을 선호하는 경우 빠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 ② 해설과 다른 풀이를 알고 싶을 때 확인해 보세요!
- ③ 긴 시간 혼자서 공부하느라 집중력이 떨어질 때 사용해 보세요!
- ④ 강의를 통해 어려운 표 분석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문제 풀이 실력도 향상시킬 수 있어요!



I	인간과 윤리 사상	
A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	12
	1 인간의 특성	
	2 인간의 본성론	
	3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14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15
II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	
B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의 연원	20
	1 동양 윤리 사상의 연원	
	2 한국 윤리 사상의 연원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21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22
C	공자 · 맹자 · 순자의 윤리 [교난도 대비]	24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26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27
	교난도 대비 문제 특강	36
	교난도 대비 기출 문제	37
D	성리학과 양명학 [1등급 대비]	38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40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41
	1등급 대비 문제 특강	51
	1등급 대비 기출 문제	52
E	도덕적 심성 [1등급 대비]	53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55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56
	1등급 대비 문제 특강	77
	1등급 대비 기출 문제	78
F	자비의 윤리	82
	1 불교의 근본 교리	
	2 부파(소승) 불교와 대승 불교	
	3 교종과 선종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84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85
G	분쟁과 화합의 윤리	93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94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95
H	무위자연의 윤리	103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105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106
I	한국과 동양 윤리 사상의 의의	121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123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124
	동아리 소개 / 이화여자대학교 홍차 동아리	136
III	서양 윤리 사상	
J	서양 윤리 사상의 연원	138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140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141
K	덕 있는 삶 [교난도 대비]	145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147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148
	교난도 대비 문제 특강	158
	교난도 대비 기출 문제	159
L	행복 추구의 방법	162
	1 에피쿠로스학파의 사상	
	2 스토아학파의 사상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164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165
M	신앙과 윤리	175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177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178
N	도덕의 기초 [교난도 대비]	186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188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189
	교난도 대비 문제 특강	200
	교난도 대비 기출 문제	201
O	옳고 그름의 기준 [1등급 대비]	204
	1 의무론	
	2 공리주의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206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207
	1등급 대비 문제 특강	226
	1등급 대비 기출 문제	227

P 현대의 윤리적 삶	228
1 실존주의	
2 실용주의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230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231
동아리 소개/중앙대학교 텃밭 동아리	246

Ⅳ 사회사상

Q 사회사상과 이상 사회	248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250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251

R 국가의 윤리	257
1 국가의 기원과 본질	
2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259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260

S 시민의 윤리 [고난도 대비]	266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268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269
고난도 대비 문제 특강	275
고난도 대비 기출 문제	276

T 민주주의 [고난도 대비]	277
1 민주주의	
2 시민 불복종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279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280
고난도 대비 문제 특강	289
고난도 대비 기출 문제	290

U 자본주의	292
1 자본주의	
2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적 시도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294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295

V 평화의 윤리	307
1 동서양의 평화사상	
2 세계 시민주의와 해외원조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309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310



최신 연도별 모의고사 10회

윤리와 사상 등급컷	317
------------------	-----

01회 2024 실시 3월 학력평가	318
02회 2024 실시 5월 학력평가	322
03회 2024 대비 6월 모의평가	326
04회 2025 대비 6월 모의평가	330
05회 2024 실시 7월 학력평가	334
06회 2024 대비 9월 모의평가	338
07회 2025 대비 9월 모의평가	342
08회 2024 실시 10월 학력평가	346
09회 2024 대비 대학수학능력시험	350
10회 2025 대비 대학수학능력시험	354

빠른 정답 찾기	358
----------------	-----

중요 문제 + 핵심 문제
동영상 강의





개념 총정리 + 단계별 난이도 기출 문제로 수능 1등급 완성

1 최신 수능 출제 경향 분석 + 개념 총정리

교과서 순서에 따라 개념을 총정리하고, 수능 출제 경향을 분석했습니다. 수능과 6월, 9월 모평에서 나온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 출제 경향 분석: 2025 대비 수능 출제 분석
- **출제**: 2025 대비 수능, 6·9월 모평 문제를 분석하여 최신 출제 경향 제시
- 심화 및 보충 자료: 용어 및 확장 개념 등을 보충 설명
- 꼭 외워!: 각 단원에서 반드시 암기할 내용 총정리

D 성리학과 양명학

1등급 대비 단원

★ 2025 수능 출제 분석

• 주희와 왕수인의 사상 비교: 치치에 대한 주희와 왕수인의 입장을 비교하는 문제가 보통 난이도로 출제되었다. 꾸준히 출제되고 있는 주제이므로 주희와 왕수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꼼꼼하게 확인해두어야 한다.

대비년도	출제 개념
2025 수능	주희와 왕수인의 사상 비교
2025 9월	주희와 왕수인의 사상 비교
2025 6월	주희와 왕수인의 사상 비교
2024 수능	주희와 왕수인의 사상 비교

1. 주희의 성리학
(1) 이기론과 심성론

• 만물은 이(理)와 기(氣)가 결합함으로써 이루어짐

★ 2025 대비 수능
출제: 2025 대비 9월 5
2025 대비 6월 5

★ 6월, 9월과 수능은 비교하는 문제가 보통

꼭 외워!

인자 탐구
• 개인으로 지 알아
• 인격적인 제시

인자 탐구
• 사회나 국 탐구함

★ 인간의 특성

이성적 존재	이성을 통해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음
사회적 존재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감

동영상 강의
핵심+중요 문제
QR코드

3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개념 순서와 단계별 난이도로 문제를 배치하여 효율적인 개념 적용 훈련과 기출 문제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 소주제별 배열: 개념을 구체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주제를 세분화해서 문항 배열
- QR코드: 단원별 핵심 문제 동영상 강의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PRACTICE Q4

D01 ★★★★★ 2025 대비 수능 15

중국 유교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치지(致知)란 내 마음의 양지(良知)를 감까지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만약 치지하지 못하면 악을 미워해야 함을 알면서도 미워함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게 된다.

을: ...

D03 ★★★★★ 2025 대비 6

중국 유교 사상이 갑, 을이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효도와 공경을 행했을 때에 비로소 '효' 공경할 줄 안다'고 말할 수 있다. 효도요 ...

● 난이도: *** - 상, ** - 중, * - 하, 1등급, 고난도

- 출처표시: 수능, 평가원 - 대비연도, 학력평가 - 실시연도
 - 2024 실시 3월 학평 20: 2024년 3월에 실시한 학력평가
 - 2025 대비 9월 모평 20: 2024년 9월에 실시한 모의고사
 - 2025 대비 수능 20: 2024년 11월에 실시한 수능

2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 실제 수능 선택지와 자료로 구성

수능, 평가원에서 출제된 자료와 선택지로 학습한 개념을 확인하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암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입니다.

-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문제 정답 및 해설 수록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1 인간의 특성

01 다음 내용이 맞으면 ○, 틀리면 ×에 표기하시오.

- ① 윤리적 존재란 타인과 더불어 집단을 형성해 삶을 영위하는 존재이다. (○, ×)
- ② 유희적 존재란 스스로 창조한 놀이를 통해 즐거움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 ×)
- ③ 서사적 존재란 유한성을 극복하기 위해 초월자에게 귀의하는 존재이다. (○, ×)
- ④ 이성적 존재란 정신적 능력을 통해 윤리적 질서를 구현하는 존재이다. (○, ×)
- ⑤ 도구적 존재는 구체적인 도구를 창조하여 선천적인 욕제의 한계를 극복한다. (○, ×)
- ⑥ 문화적 존재는 의식적 사고와 자발적 동기로부터 올바른 삶의 가치를 추구한다. (○, ×)
- ⑦ 도구적 존재는 추상적인 상징체계를 활용하여 심미적 유희를 추구한다. (○, ×)
- ⑧ 문화적 존재는 본능에 따라 삶의 재미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존재이다. (○, ×)
- ⑨ 유희적 존재는 공동체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와 목적을 만들어 가는 존재이다. (○, ×)

02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① () 존재는 신앙을 통해 내세에의 영원한 행복을

2 인간의 본성론

03 갑, 을, 병의 입장에 맞게 A / B / C에 표기하시오. [갑, 고지]

갑: 을, 병: 사상의 입장을 탐구한다.

갑의 입장: A, B, C
을의 입장: A, B, C
병의 입장: A, B, C

- ① 인간의 본성은 선이나 악으로 결정된다.
- ② 인간은 본성이 악하며, 악함이 선행됨 문이다.
- ③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양자와다.
- ④ 교육과 제도를 통해 인간의 욕망을 제어 교화해야 한다.
- ⑤ 인간은 본래 도덕성을 지닌 존재이다.
- ⑥ 인간이 타고나는 것은 식욕과 성욕뿐이

4 1등급, 고난도 대비 문제 특강

고난도 문제를 푸는 단서와 발상, 적용법, 유형 대비법, 문제 풀이 순서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 빈칸 채우기: 특강을 읽으면서 간단한 빈칸 문제를 통해 풀이 방법을 함께 익힐 수 있습니다.

정약용 사상의 이해

1등급 대비 문제 특강

• 이 유형은 제시문을 주어진 사상가의 입장을 파악한 후, (보기)에서 해당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찾는 형태로 주로 출제된다.

다음에 주어진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2025 대비 6월 모평 11

아니나 뱃속에 태아가 생기면, 행색이 멀찌감치 신성스럽고 밝은 존재를 하느니 하여 꾸미지 아니한다. 이 때문에 사람의 생김새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며 덕을 좋아하고 욕망을 수치스럽게 여긴다. 사람이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것이 분명하네 이를 거슬러 악을 행한다면 어찌 그 죄를 면할 수 있겠는가?

[보기]

ㄱ. 영지의 기호는 선을 지향할 수 있는 실재적 이치이다.
ㄴ. 사람은 이법칙(理法)의 도덕 본성이 없으나 덕을 행할 수 있다.
ㄷ. 인간은 선을 좋아할 수 있는 주체적 능력을 타고난다.
ㄹ. 예(禮)라는 성(性)은 사상지성이 발현되는 시초가 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발상

① 사람의 성(性)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한다.
② 제시문을 주어진 사상이기는 잘라내었다.
③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을 이법(理法)에 따라 선(善)으로 보는 성리학을 비판하고 새로운 사상론과 덕론을 제시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문제해

• 정약용은 인간의 성(性)이 영지의 기호와 할구의 기호로 구분된다고 본다. 따라서 영지의 기호는 선을 지향하고 좋아하는 ()이며 인간의 이러한 영지의 기호와 자수자수를 발휘하여 선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겠는가? 이를 통해 선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따라서 영지의 기호는 실재적 이치가 아니다.

• 이러한 정약용의 주장은 선한 본성이 실재적 이치, 즉 천리(天理)로서 인간에게 내재해 있다는 성리학의 주장과 구별된다.

• ㄴ은 정약용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 사람은 이법칙(理法)의 도덕 본성이 없으나 덕을 행할 수 있다.

•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고 보며 선한 본성은 이법적 도덕 본성이라고 본다. 즉 인간의 내면에는 천리(天理)라는 선한 본성의 내재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약용은 인간에게 이법적 도덕 본성이 부여되어 있다는 성리학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인간의 성에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영지의 기호가 있으며 인간은 이러한 영지의 기호에 따라 덕을 행할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라고 본다.

• ㄴ은 정약용의 입장에 부합한다.

• 인간은 선을 행할 때에 실천할 수 있는 주체적 능력을 타고난다.

• 정약용에 따르면 인간은 ()을 지닌 존재이다. 자수자국은 인간이 주체적으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 또한, 인간은 영지의 기호를 지닌 존재로서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경향을 지녔다.

• 인간이 자수자국을 바탕으로 악을 선택(天理)한 것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자기 스스로 그러한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 ㄹ은 정약용의 입장에 부합한다.

• 예(禮)라는 성(性)은 사상지성이 발현되는 시초가 될 수 있다.

• 성리학에서는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사덕이 인간에 생미(生미)한다. 사덕은 사덕의 실미라고 본다. 이러한 사덕의 관념을 ()이라고 한다. 성리학이 미워하는 예(禮)는 인간이 사(禮)를 행하는 시초가 될 수 있다.

• 그러나 정약용은 인의예지의 사덕을 성(性)이라고 보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인간의 본성이 인의예지의 사덕이 내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 정약용에 따르면 사덕은 영지의 기호에서 생겨난 사(禮)를 실천할 때 획득되는

★ 최신
모의고사
최다 수록

- 2024년 시행 7회: 전문항
- 2023년 시행 3회: 수능, 6월과 9월 모평
- ※ 최신 모의고사 10회분 등급컷 수록

[별책 부록] 수험장 극비 노트 1 꼭 출제되는 중요 개념 16개 선정 2 문제 풀이 꿀팁 3 나만의 비법 정리

고난도 문제가 출제되는 단원은 따로 1등급 대비, 고난도 대비로 분리해 수록했습니다.

★ **고난도 대비**: 정답률이 50~60% 내외의 고난도 문제입니다.



고난도 대비 기술 문제

S25

>

고난도

2023

년

월

월

일



현대 사회사상가 3집, 울의 일문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3점]

S25

>

고난도

현대 사회사상가 3집, 울의 일문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3점]

갑: 자유의 조전은 타인의 자의적 권력에 통속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 타인에 의해 지배하지 않는 사람의 권리요 설명된다. 주인인 갑에게 맞는 말은 노는 것은

가. 노는 것은 자유의 조전으로 통속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 타인에 의해 지배하지 않는 사람의 권리요 설명된다. 주인인 갑에게 맞는 말은 노는 것은

나. 노는 것은 자유의 조전으로 통속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 타인에 의해 지배하지 않는 사람의 권리요 설명된다. 주인인 갑에게 맞는 말은 노는 것은

다. 노는 것은 자유의 조전으로 통속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 타인에 의해 지배하지 않는 사람의 권리요 설명된다. 주인인 갑에게 맞는 말은 노는 것은

라. 노는 것은 자유의 조전으로 통속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 타인에 의해 지배하지 않는 사람의 권리요 설명된다. 주인인 갑에게 맞는 말은 노는 것은

마. 노는 것은 자유의 조전으로 통속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 타인에 의해 지배하지 않는 사람의 권리요 설명된다. 주인인 갑에게 맞는 말은 노는 것은

S25

>

정답 2

● 제7회 법원의 사상 > **고난도** [정답률 50%]

현대 사회사상가 3집, 울의 일문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3점]

가. 자유의 조전은 타인의 자의적 권력에 통속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 타인에 의해 지배하지 않는 사람의 권리요 설명된다. 주인인 갑에게 맞는 말은 노는 것은

나. 노는 것은 자유의 조전으로 통속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 타인에 의해 지배하지 않는 사람의 권리요 설명된다. 주인인 갑에게 맞는 말은 노는 것은

다. 노는 것은 자유의 조전으로 통속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 타인에 의해 지배하지 않는 사람의 권리요 설명된다. 주인인 갑에게 맞는 말은 노는 것은

라. 노는 것은 자유의 조전으로 통속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 타인에 의해 지배하지 않는 사람의 권리요 설명된다. 주인인 갑에게 맞는 말은 노는 것은

마. 노는 것은 자유의 조전으로 통속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 타인에 의해 지배하지 않는 사람의 권리요 설명된다. 주인인 갑에게 맞는 말은 노는 것은

문제+자료 분석

제시된 자료를 자세하게 분석해 줍니다.

출제 개념

문제의 핵심 주제를 제시합니다.

참사 해설

정답과 오답의 이유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키워드 중심으로 알려줍니다.

수능 행장

문제와 관련된 핵심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정답률

교육청 자료, 기타 기관
공지자료와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제시됩니다.

출처

출제된 기관과 시기를 알려줍니다.

선택지 분석

선택지별로 정답과 오답인 이유를 자세히 알고 쉽게 분석합니다.

활정

활정을 체크해주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단서+발상

(단서) 문제 풀이의 핵심이 되는 부분을 꼭 짚어 알려줍니다.

(발상) 단서를 통해 문제 풀이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설명합니다.

(KEY)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적용법을 알려줍니다.

문제 풀이 Tip

쉽게 풀이할 수 있도록 문제 푸는 법을 알려줍니다.



집필진 · 감수진 선생님들



자이스토리는 수능 준비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능, 평가원, 학력평가 기출 문제를 개념별, 유형별, 난이도별로
수록하였으며, 명강의로 소문난 학교·학원 선생님들께서
명쾌한 해설을 입체 침삭으로 집필하셨습니다.

[집필진]

이현우 서울 당곡고 교사

정선우 인천 대인고 교사

조승연 서울 장충중 교사

한혜정 경기 고촌고 교사

중요 문제 + 핵심 문제
동영상 강의



[특별 감수진]

김경아 용인 상현고등학교

이현진 서울 진관고등학교

임동현 음성 대금고등학교

주미림 속초 속초여자고등학교

[감수진]

강대성 서울 강동대입정보학원

강성범 광주 살레시오고등학교

권성현 아산 설화고등학교

권영수 문경 점촌고등학교

김관옥 전주 전주중앙여자고등학교

김대원 서울 광영여자고등학교

김민영 대구 영송여자고등학교

김윤환 서울 영훈고등학교

김은지 순천 순천여자고등학교

김정준 고양 중산고등학교

김지혜 대전 유성여자고등학교

김 현 부산 패스아카데미재수학원

나상운 서울 노스코사회탐구학원

노국종 서울 강동고등학교

노연정 서울 강명중학교

류우정 부산 화명미래탐구학원

문영주 대구 청운입시학원

박은미 서울 금천고등학교

박준희 양산 경남외국어고등학교

선찬란 대구 이든학원

설규웅 고양 안곡고등학교

성지윤 창원 마산제일여자고등학교

오길호 서울 하나학원

유영진 부산 센텀중학교

유현상 광양 광양제철고등학교

윤종민 서울 상문고등학교

이나경 서울 강서고등학교

이동규 서울 수명고등학교

이명희 인천 아라고등학교

이보람 서울 현대고등학교

이선유 의정부 금오중학교

이성환 인천 송도채드워국제학교

이수균 울산 이수사회과학전문학원

이시화 용인 기흥고등학교

이진희 대구 지니사회

임종모 속초 설온중학교

장연정 창원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

장지훈 서울 강서고등학교

장한빈 군산 상일고등학교

정경숙 부산 남천성문학원

정성재 부산 대신적토마학원

정은주 서울 서강학원

정효철 서울 세화고등학교

지창현 대구 학문당

진대종 대구 진한사회

최규범 경산 경산여자고등학교

최성영 대전 뉴메카학원

최승규 부산 신정고등학교

최화윤 서울 강동학원

황영미 대구 멘토사탐

수능 선배들의 **비법** 전수 - 수험장 생생 체험 소개

긴장되고 떨리는 수험장에서 선배들이
문제를 풀면서 겪은 생생한 체험과 나만의 풀이 비법을
자이스토리 해설편에 수록했습니다.



2025 응시



강다은
대구 계성고 졸업
- 문학 실전



김강민
광주 국제고 졸업
- 세계지리



김덕우
부산 해운대고 졸업
- 지구과학 II



김연우
대구 정화여고 졸업
- 화학 I



김효원
제주 제일고 졸업
- 고3 미적분



박서영
부산 금곡고 졸업
- 사회·문화



박정빈
대구 남산고 졸업
- 생활과 윤리



배지오
성남 낙생고 졸업
- 독해 실전, 어법·어휘 실전



백승준
광주 광주송일고 졸업
- 독해 실전, 어법·어휘 실전



서정후
광주 송덕고 졸업
- 지구과학 I



성예현
대전 대전전민고 졸업
- 언어와 매체 실전



안한민
익산 남성고 졸업
- 화법과 작문 실전



오현준
서울 한영고 졸업
- 생명과학 II



윤혁준
서울 강서고 졸업
- 생명과학 I



이예슬
서울 독산고 졸업
- 동아시아사



이정근
안양 평촌고 졸업
- 고3 기하



이지원
대구 성화여고 졸업
- 고3 수학 I, 고3 수학 II



임지호
부산 동아고 졸업
- 물리학 I



장윤서
부산 사직여고 졸업
- 독서 실전



정규원
부산 남성여고 졸업
- 고3 확률과 통계



최승우
광주 광주서석고 졸업
- 화학 II



최아람
서울 광영고 졸업
- 윤리와 사상



최여진
광주 국제고 졸업
- 한국지리



한규진
대구 계성고 졸업
- 독해 실전, 어법·어휘 실전



한상효
성남 낙생고 졸업
- 수능 한국사



한성은
익산 남성여고 졸업
- 고3 수학 I, 고3 수학 II

2024년

곽지훈 서울 한영외고 졸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권민재 서울 광영외고 졸 (강릉원주대 치의예과)
김동현 안성 안법고 졸 (연세대 실내건축학과)
김서현 대전한빛고 졸 (카이스트 새내기과정학부)
김신유 익산 남성고 졸 (순천향대 의예과)
김아린 대전한빛고 졸 (충남대 의예과)
김용희 화성 화성고 졸 (단국대 의예과)
김지희 광주 국제고 졸 (고려대 한국사학과)
김태현 부산 대연고 졸 (서울대 수리과학부)
류이레 광주대동고 졸 (연세대 의예과)
문지민 대구 정화여고 졸 (고려대 중앙중문학과)
변준서 화성 화성고 졸 (연세대 실내건축학과)
심기현 대구 계성고 졸 (경북대 의예과)
오서운 서울 광문고 졸 (충남대 의예과)
진성연 부산국제고 졸 (서울대 사회학과)
조수근 성남 태원고 졸 (순천향대 의예과)
최정우 원주 육민관고 졸 (서울대 건축학과)

2023년

강 한 서울 배재고 졸 (고려대 융합에너지공학과)
권주원 서울 배재고 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김보겸 광주서석고 졸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김수정 부산국제고 졸 (고려대 서어서문학과)
김준서 부산 대연고 졸 (부산대 의예과)
김태산 광주서석고 졸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김현서 경기 평택고 졸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나인규 광주 국제고 졸 (한양대 경영학과)
명준하 광주서석고 졸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박서영 부산 해운대고 졸 (서울대 심리학과)
박세민 광주 광덕고 졸 (서울대 의예과)
장경은 서울 세화여고 졸 (고려대 통계학과)
장성욱 부산 대연고 졸 (동아대학교 의예과)
정서린 서울 세화여고 졸 (서울대 약학과)
조현준 익산 이리고 졸 (전북대 의예과)
최윤성 서울 양정고 졸 (서울대 공과대학 광역)
홍채연 서울 한영고 졸 (고려대 불어불문학과)



문항 배열 및 구성 [1060제+개념 체크 문제 512제]

①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문제 [512제]

- 개념 하나하나에 대한 확인 문제를 제시하여 개념을 충실히 다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② 최신 5개년 수능+6, 9월 모평+고3 학력평가 전문항 수록 [700제]

- 새교육과정에 해당하는 5개년 35회 기출문제를 모두 수록했습니다.

③ 새교육과정에 꼭 맞는 수능+6, 9월 모평+고2, 고3 학력평가 문제 수록 [160제]

- 새 수능 출제 기준에 적합한 기출문제들을 모두 수록했습니다.

④ 최신 연도별 모의고사 10회 [200제]

- 2024년 7회: 전회차 수록
- 2023년 시행 3회: 수능, 6월 모평, 9월 모평 수록
- 회차별 등급컷(원점수, 표준점수) 수록

[윤리와 사상 수록 문항 구성표]

대비연도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수능	합계	비고	
2025	20	20	20	20	20	20	20	140	* 전문항 수록 (문제 특강 8문항 포함)	
2024	20	20	20	20	20	20	20	140		
2023	20	20	20	20	20	20	20	140		
2022	20	20	20	20	20	20	20	140		
2021	20	20	20	20	20	20	20	140		
2020	6	6	7	8	9	10	11	57	* 새교육과정 선별 수록	
2019	3	2	6	2	9	1	11	34		
2019 이전	59							59		
고2	5							5		
생원	T 민주주의(시민 불복종) 2문항 + V 평화의 윤리(해외원조) 3문항							5		
총 문항 수									860	최신 연도별 모의고사 200

2025 대비 6월, 9월 모평+수능

윤리와 사상 문항 배치표

문항 번호	6월	9월	수능
1	J 01	C 03	C 01
2	K 07	P 44	U 01
3	H 05	H 10	L 01
4	K 08	O 38	P 43
5	F 30	F 24	N 45
6	특강 36쪽	K 39	O 24
7	특강 226쪽	O 25	E 76
8	P 47	D 04	T 01
9	M 11	R 13	H 01
10	D 03	N 47	S 01
11	특강 77쪽	E 07	N 01
12	O 03	O 02	V 01
13	I 02	S 02	E 81
14	U 01	G 04	M 01
15	L 02	U 32	D 01
16	E 02	M 02	F 21
17	N 02	N 04	O 71
18	Q 02	Q 04	I 01
19	T 32	E 82	R 01
20	O 27	I 04	G 01

I

인간과 윤리 사상

A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

- 1 인간의 특성
- 2 인간의 본성론
- 3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

★ 2025 수능 출제 분석

- 6, 9월 모평에 이어 수능에서도 출제되지 않았다.

대비년도	출제 개념	난이도
2025 수능	-	-
2025 9월	-	-
2025 6월	-	-
2024 수능	-	-

1 인간의 특성

이성적 존재	• 이성을 통해 자신과 세계에 대해 끊임없이 사유하고 해석하며 살아감 • 어떤 판단과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결정함
도구적 존재	인간에게 필요한 다양한 유형·무형의 도구를 만들고 사용함
사회적 존재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사회 속에서 도움을 주고받으며 성장함
정치적 존재	국가를 이루며 정치적 생활을 영위함
유회적 존재 ^①	• 삶의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감 • 기쁨과 슬픔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놀이를 즐김
문화적 존재	언어, 기술, 지식 등 인간 고유의 문화를 창조하고 계승하며 살아감
윤리적 존재	• 도덕규범을 만들어 지키며,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살아감 • 자유 의지에 의한 행동, 행위에 대한 반성, <u>당위와 인간다움을 추구함</u>
종교적 존재	초월적 존재를 믿으며 살아감

+보충 윤리의 의미

윤(倫)자는 '사람[人]'과 '무리[倫(윤)]'를 합해서 만든 글자로 인간 집단, 무리, 질서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리(理)자는 원래 '옥(玉)을 다듬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치, 이법, 도리를 뜻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윤리(倫理)는 인간관계의 이법 또는 인간관계에서 따라야 할 도리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① 유회적 존재

인간은 생존이나 삶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일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피로를 풀고 생활에 활력을 주며 삶의 기쁨과 슬픔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놀이를 발전시키는 유회적 존재이다.

❁ 인간의 특성 비교

나는 인종을 차별하는 인도인 등록 법령에 대해 불복종하고, 그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다. 나는 인도의 한 시민으로서, 또한 양심을 존중하는 한 사람으로서 비폭력을 통해 정의(正義)를 행하고자 한다.

- 간디 -

- * 간디의 주장으로, 간디는 인종 차별적인 법령에 저항하여 신념을 지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즉, 인간의 특성 중 올바른 신념을 실천하여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존재로서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다.

사람은 고립되어서는 자족적일 수 없으므로 국가에 모두 의존해야 한다. 국가만이 자족한 상태를 이룰 수 있다. 고립된 개인은 국가의 일부가 아니며, 따라서 금수(禽獸)이거나 신일 것이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국가에 살도록 되어 있는 존재이다.

-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

- *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정치적 동물이기 때문에 고립되어 살 수 없는 존재로서 자연스럽게 가정과 사회를 이루고 이를 토대로 국가가 생겨났다고 보았다.

2 인간의 본성론

본성론	대표적 사상가	주요 내용
성선설	맹자	• 인간은 타고난 선한 도덕심을 갖추고 있어 선한 존재라는 입장 • 모든 사람에게선 선한 네 가지 마음[사단(四端)]이 있으며, 선한 본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양이 필요함
성악설	순자	• 인간은 본래 이익을 좋아하고 남을 질투하며 미워하는 악한 존재라는 입장 • 인간은 본성이 악해 악한 충동이나 공격성을 지님 • 인간이 선한 것은 인위적·후천적 노력의 결과임
성무선악설	고자	• 인간의 본성이 선이나 악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입장 • 인간이 선하고 악한 것은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

3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

1. 윤리 사상의 의미

(1) 윤리 사상의 의미와 중요성

의미	인간의 도덕적 삶과 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생각
중요성	자아의 발견과 성찰, 올바른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을 줌
사례	동양의 유교, 불교, 도교, 서양의 의무론, 공리주의 등

(2) 한국 및 동양 윤리 사상의 특징과 의의

특징	- 세계를 개체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유기적 관계로 ^② 맺어진 통합된 전체로 봄 - 개인의 가치를 경시하지 않지만, 개인도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의미가 있다고 봄
현대적 의의	- 환경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음 - 현대 사회의 지나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인한 소외 문제 해결에 기여함

(3) 서양 윤리 사상의 특징과 의의

특징	- 인간이 구현해야 하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함 - 인간의 이성과 이성애 바탕을 둔 윤리적 탐구를 중시함
현대적 의의	-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 - 인간의 도덕적 삶과 행복, 바람직한 공동체 등을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다양한 틀을 제공함

2. 사회사상의 의미와 중요성

의미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체계적인 생각
중요성	- 사회 문제를 비판하고 해결하는 기준을 제공함 - 사회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틀이 되고,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을 제시함
특징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인류 사회의 발전에 기여함
사례	- 민본주의 ^③ 백성을 근본으로 여기고 민심을 존중하는 도덕적 정치가 실현되게 함 - 자유주의 ^④ 사람들이 봉건 사회의 불평등에서 벗어나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바탕이 됨 - 민주주의 ^⑤ 각자가 나라의 주인으로서 다양한 형태로 정치에 참여하는 데 도움을 줌 - 사회주의 ^⑥ 빈부 격차로부터 벗어나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을 뒷받침함

3.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의 관계 ^⑦

(1) 상호 관련성 ^⑧: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은 상호 의존적이고 보완적인 관계임

(2) 공통점: 궁극적으로 인간다움과 행복을 실현하고자 함

* 인간의 특성

이성적 존재	이성을 통해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음
사회적 존재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감
윤리적 존재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도덕규범을 만들어 지키며 자신의 삶을 성찰함
정치적 존재	국가를 이루며 정치적 생활을 영위함

* 인간 본성에 대한 입장

맹자의 성선설	모든 사람에게에는 사단이 있으며, 선한 본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양이 필요함
순자의 성악설	인간은 본래 이익을 좋아하고 남을 질투하며 미워하는 악한 존재로, 선함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인위적 노력이 필요함
고자의 성무선악설	식욕과 성욕이 인간 본성의 전부로, 인간의 본성은 선 또는 악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음

꼭 외워!

② 유기적 관계

전체를 구성하는 각각의 부분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따로 떼어 낼 수 없는 관계

③ 민본주의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정치라는 의미이며, 유교 사상가들이 생각한 이상적인 정치이다.

④ 자유주의

개인은 자신의 인격을 표현할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여기며, 자유에 대한 신념을 보호하는 제도와 정책을 지지한다.

⑤ 민주주의

민중이 지배하는 정치 체제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강조한다.

⑥ 사회주의

자본주의 경제의 불안정성과 불평등을 비판하며 등장하였다. 빈부 격차 해소와 평등 사회의 실현을 지향한다.

+보충 민본주의 vs 민주주의

민본주의와 민주주의는 모두 백성과 시민을 국가의 근본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민본주의는 백성을 통치의 대상으로 보는 반면 민주주의는 시민을 통치의 주체로 본다는 차이점이 있다.

⑦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의 비교

윤리 사상	- 개인으로서는 바람직한 삶이 무엇인지 탐구함 - 개인으로서는 해야 하는 행위와 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에 대한 규범을 제시함 - 인격적으로 완성된 이상적 인간상 제시
사회 사상	- 사회나 국가의 바람직한 모습을 탐구함 -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규범, 즉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제시함 - 이상 사회의 모습을 제시함

⑧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의 상호 관련성

- 개인의 삶과 사회와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음
- 도덕적인 사람이 모일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될 가능성이 크고, 사회나 국가가 정의로워야 그 구성원이 도덕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큼



1 인간의 특성

01 다음 내용이 맞으면 ○, 틀리면 ×에 표기하십시오.

- ① 윤리적 존재란 타인과 더불어 집단을 형성해 삶을 영위하는 존재이다. (○, ×)
- ② 유희적 존재란 스스로 창조한 놀이를 통해 즐거움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 ×)
- ③ 서사적 존재란 유한성을 극복하기 위해 초월자에게 귀의하는 존재이다. (○, ×)
- ④ 이성적 존재란 정신적 능력을 통해 윤리적 질서를 구현하는 존재이다. (○, ×)
- ⑤ 도구적 존재는 구체적 도구를 창조하여 선천적인 육체의 한계를 극복한다. (○, ×)
- ⑥ 문화적 존재는 의식적 사고와 자발적 동기로 올바른 삶의 가치를 추구한다. (○, ×)
- ⑦ 도구적 존재는 추상적인 상징체계를 활용하여 심미적 유희를 추구한다. (○, ×)
- ⑧ 문화적 존재는 본능에 따라 삶의 재미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존재이다. (○, ×)
- ⑨ 유희적 존재는 공동체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와 목적을 만들어 가는 존재이다. (○, ×)

02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 ① () 존재는 신앙을 통해 내세에의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 ② () 존재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존재이다.
- ③ () 존재는 유희적 활동을 통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존재이다.
- ④ () 존재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여 도덕적 삶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 ⑤ () 존재는 타인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존재이다.
- ⑥ () 존재는 자신이 선택한 행위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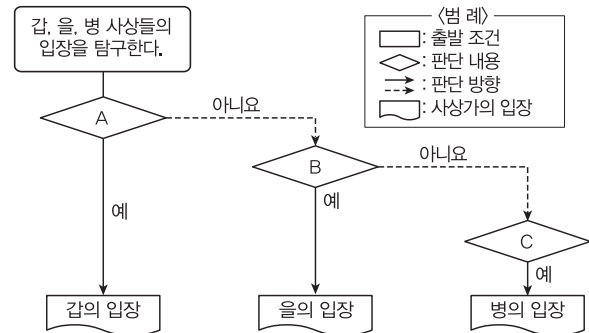
[보기]

이성적	도구적	사회적
종교적	윤리적	유희적

2 인간의 본성론

03 갑, 을, 병의 입장에 맞게 A / B / C에 표시하십시오.

[갑: 고자, 을: 맹자, 병: 순자]



- ① 인간의 본성은 선이나 악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가? (A / B / C)
- ② 인간은 본성이 악하며, 악함이 선해짐은 후천적 인위때문인가? (A / B / C)
- ③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양지와 양능을 지니고 있는가? (A / B / C)
- ④ 교육과 제도를 통해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고 도덕적으로 교화해야 하는가? (A / B / C)
- ⑤ 인간은 본래 도덕성을 지닌 존재인가? (A / B / C)
- ⑥ 인간이 타고나는 것은 식욕과 성욕뿐인가? (A / B / C)

3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

04 다음 내용이 맞으면 ○, 틀리면 ×로 표기하십시오.

- ① 사회사상은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 해설하는 체계적인 생각이다. (○, ×)
- ② 윤리 사상은 자아의 성찰, 올바른 삶의 목적을 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 ×)
- ③ 윤리 사상은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틀이 되고,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을 제시한다. (○, ×)
- ④ 사회사상은 인간의 도덕적 삶과 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생각이다. (○, ×)
- ⑤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은 상호 의존적이고 보완적인 관계이다. (○, ×)
- ⑥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은 인간 존엄성의 존중과 실현을 추구한다. (○, ×)

정답

- 01 ① ×(사회적 존재) ② ○ ③ ×(종교적 존재) ④ ×(윤리적 존재) ⑤ ○ ⑥ ×(윤리적 존재) ⑦ ×(유희적 존재) ⑧ ×(유희적 존재) ⑨ ×(서사적 존재)
- 02 ① 종교적 ② 윤리적 ③ 유희적 ④ 윤리적 ⑤ 사회적 ⑥ 윤리적

- 03 ① A ② C ③ B(맹자는 사람은 누구나 도덕적 인식 능력인 양지와 도덕적 실천 능력인 양능을 지니고 있다고 봄) ④ C ⑤ B ⑥ A
- 04 ① ○ ② ○ ③ ×(사회사상) ④ ×(윤리 사상) ⑤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은 상호 의존성을 지님) ⑥ ○(모두 인간다움과 행복을 실현하고자 함)



1 인간의 특성

A01 *** 2019 실시 6월 학평 1 (고2)

그림의 강연자가 강조하는 인간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느 동양 사상가는 매일 세 가지를 반성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남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 벗과 사귀에 있어 믿음을 주었는가? 스승에게 배운 바를 실천으로 옮겼는가?'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싶을 때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 ① 자연적인 욕구에 충실한 유희적 삶을 실현하는 존재이다.
- ② 자신의 고정관념에 따라 수동적인 삶을 영위하는 존재이다.
- ③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보다 사익 추구를 우선하는 존재이다.
- ④ 도덕적 성찰을 통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존재이다.
- ⑤ 자신의 성공을 위해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다.

A02 *** 2015 대비 6월 모평 1

다음 글의 농부의 행위에 나타난 인간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외국 작가가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소달구지에 벼단을 싣고 가는 농부를 보았다. 그런데 그 농부도 자신의 지게에 벼단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의아하게 생각한 그 작가가 물었다. "소달구지를 두고 왜 당신이 벼단을 지고 가시죠?" 농부는 대답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힘든 건 마찬가지 아니겠소?" 작가는 생각했다. '소의 짐마저 덜어주려는 마음! 내가 한국에서 보고 싶었던 바로 그 모습이야.' 그 작가는 그 후 한국을 '고상한 사람들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라고 말했다.

- ① 다른 생명체들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는 존재이다.
- ② 자연법칙에 따라 결정된 운명에 순응하는 존재이다.
- ③ 유희적 활동을 통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존재이다.
- ④ 타인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정치 질서를 만드는 존재이다.
- ⑤ 세속에서 벗어나 정신적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존재이다.

A03 *** 2016 실시 7월 학평 1

다음 글에 나타난 인간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느 옛 성현은 매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스스로 질문했다고 합니다. '남을 위해 일을 할 때 충실하지 않았는가? 친구들과 사귀에 있어 믿음을 잃지 않았는가? 가르침 받은 것을 복습하지 않았는가?' 저는 이 질문이 지금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삶의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 ① 노동을 통해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는 존재이다.
- ② 반성적 성찰을 통해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이다.
- ③ 타인과의 연대를 통해 사회 제도를 개선하는 존재이다.
- ④ 본능에 따라 삶의 재미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존재이다.
- ⑤ 구원을 얻기 위해 초월적 절대자에 귀의(歸依)하는 존재이다.

A04 *** 2019 실시 9월 학평 1 (고2)

그림의 가상 대화에서 스승의 주장을 통해 알 수 있는 인간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일상생활에 유용한 도구를 제작하여 이용하는 존재이다.
- ② 다양한 놀이를 통해 감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 ③ 자기 자신의 삶을 성찰하여 도덕적 삶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 ④ 문자와 같은 상징체계를 활용하여 문화를 계승하는 존재이다.
- ⑤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얻기 위하여 학문을 탐구하는 존재이다.



- 200 자이스토리 윤리와 사상



고난도 대비 기출 문제

FOR THE SECOND CLASS LEVEL

N44 ★ 고난도 2024 실시 3월 학평 18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인간이 사물을 실재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사물을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관련지어 파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물을 신 안에 있고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서 발생한다고 파악하는 것이다. 후자의 방식으로 우리의 정신과 신체를 파악하면 필연적으로 신을 인식하게 되며, 정신이 신 안에 있고 신에 의해 인식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보기]

- ㄱ. 신 없이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고 인식될 수 없다.
- ㄴ. 신은 무한 양태이며 모든 유한 양태의 내재적 원인이다.
- ㄷ. 정신은 신체와 달리 자연의 인과 법칙으로부터 자유롭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N45 ★ 고난도 2025 대비 수능 5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신은 곧 자연이다. 개별적 존재는 신의 속성을 어떤 일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양태이다. 정서는 신체의 활동 능력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신체의 변용인 동시에 그러한 변용의 관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변용의 타당한 원인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그 정서를 능동이라고 이해하고, 그렇지 않다면 수동이라고 이해한다.

- ① 신은 유일한 실체로서 모든 자연 세계의 안과 밖에 존재한다.
- ② 쾌락을 억제해야만 이성의 힘으로 비로소 지복에 도달할 수 있다.
- ③ 자연은 인과적 관계를 넘어선 목적의 필연성으로 정해져 있다.
- ④ 정념에 속박되지 않은 사람도 원인에 대한 명확한 관념에 의존한다.
- ⑤ 선은 양태가 지닌 특성으로서 자기 보존을 위한 활동 능력 그 자체이다.

N46 ★ 고난도 2024 실시 5월 학평 11



중세 서양 사상이 갑, 근대 서양 사상이 을이 공통으로 지지할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신의 존재는 다섯 가지로 논증될 수 있다. 그중 첫째는 운동 변화를 통한 논증이다. 모든 움직임은 다른 것로부터 움직여진다. 이 운동이 무한 소급될 수 없으므로, 우리는 제1운동자로서 신의 존재에 필연적으로 도달하게 된다.

을: 신이란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 즉 영원하고도 무한한 본질을 표현하는 무한한 속성들로 이루어져 있는 실체이다. 그리고 이 실체는 필연적으로 존재하며, 인간은 이 실체의 유한한 양태(樣態)이다.

[보기]

- ㄱ. 신의 섭리에 따를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 ㄴ. 신의 존재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 인식될 수 있다.
- ㄷ. 신이 자연을 창조한 초월적 존재자임을 알아야 한다.
- ㄹ. 신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자유 의지를 발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N47 ★ 고난도 2025 대비 9월 모평 10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신은 곧 자연이며 실체이다. 개체, 즉 유한하고 특정한 존재는 실체의 양태이다. 신적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무한히 많은 것들이 무한히 많은 방식으로 따라 나와야만 한다.

- ① 신적 본성은 자연법칙을 매개하지 않아도 작용할 수 있다.
- ② 욕망, 사랑, 지성을 모두 가진 개체만이 실체의 양태가 된다.
- ③ 신적 본성을 표현하는 양태의 수는 셀 수 있을 정도로 유한하다.
- ④ 신의 선택과 결정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세계는 설명되지 않는다.
- ⑤ 사건 사이에는 실제적 인과 관계를 제외한 다른 방식은 불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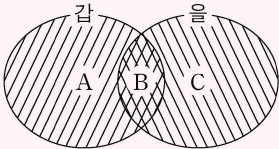
벤담과 밀의 입장 비교

1등급 대비 문제 특강

- 이 유형은 갑, 을 사상가의 입장을 파악한 후, 각 사상가만의 입장과 공통 입장으로 옳은 것을 찾는 형태로 주로 출제된다.

(가)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25 대비 6월 모평 7

(가)	갑: 어떤 행위의 일반적 경향은 그 결과의 총량에 따라서, 즉 쾌락의 총량과 고통의 총량의 차에 따라서 더 유익하거나 더 유해하다. 을: 어떤 종류의 쾌락은 다른 종류의 쾌락들에 비해 질적으로 더 바람직하고 더 가치 있다는 것과 공리의 원리는 양립할 수 있다.
(나)	 〈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과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보기]

- ㄱ. A: 행복은 쾌락의 양의 증가를 통하여 증진될 수 있다.
 ㄴ. B: 좋은 목적을 위해서는 나쁜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
 ㄷ. B: 어떤 쾌락은 다른 쾌락보다 더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ㄹ. C: 저급한 쾌락은 어떤 경우에도 바람직한 쾌락이 아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단서+발상

단서 갑: 쾌락의 총량과 고통의 총량을 중시함
 을: 쾌락의 양과 질적 차이를 인정함

발상 갑은 벤담, 을은 밀이다.

KEY 두 사상가 모두 공리주의 사상가이기 때문에 행위의 **1**를 중시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벤담과 밀은 모두 쾌락의 양을 고려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 문제 풀이 순서 |

step 1 제시문의 사상가가 누구인지 파악한다.

- 갑은 양적 공리주의를 주장한 벤담이다.
- 을은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한 밀이다.

step 2 벤다이어그램의 A~C에 대한 갑, 을 사상가의 입장을 판단한다.

- <보기>의 선택지가 벤다이어그램의 A, B, C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인지 판단한다.

| 보기 분석 |

ㄱ. A: 행복은 쾌락의 양의 증가를 통하여 증진될 수 있다.

- 갑(벤담)의 입장 판단: 갑(벤담)은 모든 쾌락에는 오직 양적인 차이만 있다는 양적 공리주의를 주장한다. 따라서 행복은 쾌락의 양의 증가를 통하여 증진될 수 있다고 본다.
- 을(밀)의 입장 판단: 을(밀)은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2**를 고려해야 한다는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한다. 그러나 을(밀)도 쾌락의 양적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에 행복은 쾌락의 양의 증가를 통하여 증진될 수 있다고 본다.

* ㄱ은 갑(벤담)과 을(밀)의 공통 입장에 해당한다.

ㄴ. B: 좋은 목적을 위해서는 나쁜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

- 갑(벤담)의 입장 판단: 갑(벤담)은 공리주의 사상가로서 행위의 결과를 중시한다.
- 을(밀)의 입장 판단: 을(밀)은 공리주의 사상가로서 행위의 결과를 중시한다.
- 따라서 갑(벤담)과 을(밀)은 좋은 결과나 목적을 위해 나쁜 수단도 정당화될 수 **3**고 본다.
 예를 들어 거짓말이라는 나쁜 수단을 통해 여러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 거짓말은 정당화될 수 있다.

* ㄴ은 갑(벤담)과 을(밀)의 공통 입장에 해당한다.

ㄷ. B: 어떤 쾌락은 다른 쾌락보다 더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 갑(벤담)의 입장 판단: 갑(벤담)은 양적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양적으로 더 많은 쾌락은 양적으로 더 적은 쾌락보다 더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 을(밀)의 입장 판단: 을(밀)은 질적 공리주의 입장에서 질적으로 높은 쾌락은 낮은 쾌락보다 더 가치 있다고 본다.

* ㄷ은 갑(벤담)과 을(밀)의 공통 입장에 해당한다.

ㄹ. C: 저급한 쾌락은 어떤 경우에도 바람직한 쾌락이 아니다.

- 을(밀)의 입장 판단: 을(밀)은 단순한 **4** 쾌락은 **5** 쾌락보다 저급한 쾌락이라고 본다. 그러나 을(밀)은 저급한 쾌락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다.
- 예를 들어 음식을 먹는 행위는 단순한 감각적 쾌락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러한 것을 을(밀)이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 ㄹ은 을(밀)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 정답은 ③ ㄴ, ㄷ이다.



이 유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벤담과 밀 모두 공리주의 사상가로서 행위의 결과를 중시하고, 둘 다 쾌락의 양을 고려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해설 9 해설 7 해설 8 해설 2 해설 1 [답] 3



1등급 대비 기출 문제

FOR THE FIRST CLASS LEVEL

071 ★1등급 대비 2025 대비 수능 17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인간은 예지 세계의 성원인 동시에 감성 세계의 성원이기도 하다. 예지 세계에 속하는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기 의지의 원인성을 자유의 이념 아래 놓여 있는 것으로밖에는 달리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자유의 이념이 나를 예지 세계의 구성원으로 만들으로써 정언 명령이 가능해진다.

- ① 자유 의지는 도덕 법칙에 속박된 의지와는 다른 종류의 것이다.
- ② 자기 행복의 추구는 직접적 의무는 아니지만 선의지를 증대한다.
- ③ 도덕 법칙에 적합한 준칙은 의욕 대상을 위해서 보편화된 것이다.
- ④ 이성을 지닌 완전한 존재에게도 정언 명령이 부과될 수밖에 없다.
- ⑤ 의지의 자율은 감성 세계의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도 결정되지 않는다.

072 ★1등급 대비 2022 대비 수능 16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내 위의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의 도덕 법칙, 나는 이 둘을 마치 어둠 속에 감춰져 있는 것처럼 찾거나 추측하지 않는다. 나는 이 둘을 눈앞에서 보고 나의 존재 의식과 직접 연결시킨다. 도덕 법칙은 나의 인격성에서 출발하고, 참된 무한성을 갖는, 그러나 지성에 의해서만 감지되는 세계, 즉 예지계 속에서 나를 나타낸다. 예지계와 나의 연결은 결코 우연적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필연적임을 나는 인식한다.

- ① 보편적 도덕 법칙만이 명령의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 ② 신과 인간 모두에게 도덕 법칙이 의무로 부과될 수 있다.
- ③ 의무로부터 비롯된 모든 행위는 의무에 맞는 행위에 속한다.
- ④ 개인의 주관적 행위 규칙은 보편적 도덕 법칙이 될 수 없다.
- ⑤ 인간은 자연법칙의 지배하에 있지 않으며 도덕 법칙에만 지배받는다.

073 ★1등급 대비 2024 실시 10월 학평 12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이성적 존재는 목적의 나라에서 스스로 수립한 법칙에만, 그리고 자신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는 그 법칙에만 복종하도록 정해져 있다. 모든 가치를 결정하는 법칙의 수립 자체가 존엄하기 때문에, 스스로 법칙을 수립하는 자율은 이성적 본성이 존엄하다는 근거가 된다.

- ① 이성적 존재는 자신의 본성에 의해 목적 자체가 된다.
- ②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은 도덕적 행위의 동기가 된다.
- ③ 도덕 법칙에 맞는 행위가 곧 도덕적 행위인 것은 아니다.
- ④ 행위의 도덕성은 준칙의 보편화 가능성에 따라 판단된다.
- ⑤ 선의지를 지닌 모든 존재에게 도덕 법칙은 의무로서 부과된다.

074 ★1등급 대비 2024 실시 3월 학평 7



근대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행위의 도덕성은 행위의 결과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행위가 일어나는 데 있지 않고, 오직 의무로부터, 즉 도덕 법칙을 위해서만 행위가 일어나는 데 있다.
을: 행위와 품성이 유덕하다거나 악덕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행위와 품성을 바라볼 때 특별한 종류의 쾌락이나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보기]

- ㄱ. 갑: 보편화 가능한 준칙에 맞는 모든 행위는 도덕적이다.
ㄴ. 갑: 도덕 법칙은 자율적 인간에게 의무로 부과될 수 없다.
ㄷ. 을: 선과 악은 감정으로 구별되지만 객관적 실재는 아니다.
ㄹ. 갑과 을: 이성과 감정은 모두 도덕적 행위에 기여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윤리와 사상 등급컷

❖ 컷 구분 원점수는 실제 점수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회 [2024년 실시 3월 학평]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39	70
2	33	64
3	26	57
4	21	52
5	15	46
6	11	42
7	8	39
8	6	37

6회 [2024년 대비 9월 모평]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45	67
2	40	63
3	36	59
4	28	53
5	20	46
6	14	41
7	10	38
8	7	35

2회 [2024년 실시 5월 학평]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45	70
2	38	64
3	31	58
4	24	52
5	16	45
6	13	42
7	9	39
8	7	37

7회 [2025년 대비 9월 모평]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45	68
2	40	64
3	35	59
4	27	53
5	18	45
6	14	42
7	10	38
8	7	36

3회 [2024년 대비 6월 모평]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47	65
2	46	64
3	40	60
4	30	53
5	19	45
6	14	41
7	9	38
8	7	36

8회 [2024년 실시 10월 학평]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44	68
2	41	65
3	33	59
4	24	52
5	15	44
6	11	41
7	8	39
8	7	38

4회 [2025년 대비 6월 모평]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42	71
2	36	65
3	28	57
4	22	51
5	16	45
6	13	42
7	10	39
8	7	36

9회 [2024년 대비 수능]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50	63
2	—	—
3	45	60
4	38	55
5	25	46
6	18	41
7	12	37
8	7	33

5회 [2024년 실시 7월 학평]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50	70
2	45	66
3	35	59
4	24	51
5	15	44
6	10	41
7	9	40
8	6	38

10회 [2025년 대비 수능]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43	68
2	38	64
3	33	60
4	24	52
5	15	44
6	12	42
7	9	39
8	6	37



★ 최신 연도별 모의고사 10회

[제한시간: 30분]

- 01회 2024 실시 3월 학력평가
- 02회 2024 실시 5월 학력평가
- 03회 2024 대비 6월 모의평가
- 04회 2025 대비 6월 모의평가
- 05회 2024 실시 7월 학력평가
- 06회 2024 대비 9월 모의평가
- 07회 2025 대비 9월 모의평가
- 08회 2024 실시 10월 학력평가
- 09회 2024 대비 대학수학능력시험
- 10회 2025 대비 대학수학능력시험



제1회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1.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가가 강조한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에게

오늘은 관직을 수행하려는 자네에게 조언을 하려 하네. 천하란 신묘하여 인위로는 다스릴 수 없다네. 인위로 다스리는 자는 천하를 망치고 인위에 집착하는 자는 천하를 잃게 되네. 그래서 성인(聖人)은 “내가 무위(無爲)하므로 백성이 저절로 선하게 되고 내가 일을 벌여 놓지 않으므로 백성이 저절로 부유하게 된다.”라고 말했다네.

- ① 일체의 번거가 소멸된 이상적 경지[涅槃]로 중생을 인도한다.
- ② 문명의 이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천하의 이익을 도모한다.
- ③ 어떤 일이든 왜곡이나 조작 없이 자연의 순리에 따라 처리한다.
- ④ 성현이 제정한 예(禮)를 익혀 자신의 타고난 성품을 교정한다.
- ⑤ 감각적 경험에 근거하여 사물을 인식하고 선과 악을 분별한다.

2.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하늘[天]이 준 벼슬이 있고 사람이 주는 벼슬이 있다. 인의충신(仁義忠信)은 하늘이 준 벼슬이다. 공(公), 경(卿), 대부(大夫)는 사람이 주는 벼슬이다. 사람이 주는 벼슬을 얻고 하늘이 준 벼슬을 팽개치면, 사람이 주는 벼슬도 잃게 된다.

- ① 인의보다는 상벌로써 다스릴 때 왕도(王道)가 실현된다.
- ② 의로운 일을 반복함으로써 양지와 양능을 형성해야 한다.
- ③ 대인과 소인은 모두 남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타고난다.
- ④ 군주는 천명(天命)을 부여받은 존재이므로 교체될 수 없다.
- ⑤ 일반 백성은 향산(恒産) 없이 향심(恒心)을 유지할 수 있다.

3. (가)를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국가의 구성원은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세 계층으로 나뉜다. 이들은 타고난 성향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한 가지 일을 담당하며 다른 계층의 일에 참견하지 않고, 모두 절제를 갖추어 서로 반목하지 않는다.
(나)	학생: 이상 사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교사: ㉠

- ① 구성원의 합의로 만들어진 선의 이데아에 따라 통치됩니다.
- ② 구성원은 자유롭게 자신의 계층과 직업을 고를 수 있습니다.
- ③ 각 계층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재산을 공유합니다.
- ④ 각 계층은 자신의 덕을 발휘하며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 ⑤ 통치자의 정치권력으로부터 철학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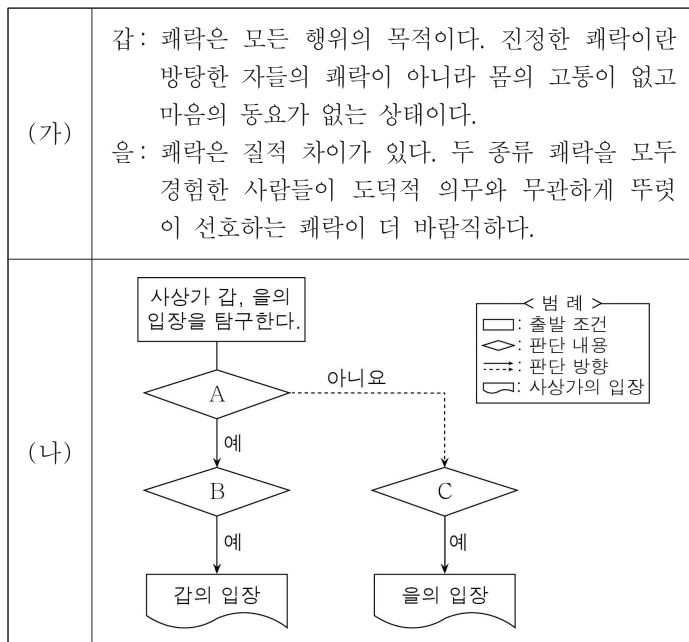
4. 다음을 주장한 현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삶이란 인간과 환경의 조화가 깨지고 다시 회복되는 리듬으로 이루어진다. 인간이 저항과 갈등을 극복하여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갈 때 삶은 성장한다. 성장 자체가 도덕의 유일한 목적이다.

- < 보 기 >
- ㄱ. 지식의 오류 가능성을 부정하고 지성을 발휘해야 한다.
 - ㄴ. 도덕은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 ㄷ. 실제적으로 유용한 결과를 산출하는 지식은 가치를 갖는다.
 - ㄹ. 인간이 성장하는 데 기여한 이론은 영원불변의 진리가 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5. (가)의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 보 기 >
- ㄱ. A: 개인의 쾌락보다 사회 전체의 쾌락을 추구해야 하는가?
 - ㄴ. B: 진정한 쾌락은 사려 깊은 삶을 살 때 누릴 수 있는가?
 - ㄷ. B: 평정심에 이르기 위해 공적인 활동을 멀리해야 하는가?
 - ㄹ. C: 지적 쾌락은 단순한 감각적 쾌락보다 더 가치가 있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6. 한국 불교 사사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진여문은 더러움과 깨끗함이 통한 모습이고 생멸문은 더러움과 깨끗함이 별도로 드러난 모습이다. 두 문[二門]은 다르지만 서로 배척하는 것이 없고,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이를 곧 일심(一心)이라 한다.

을: 돈오와 점수의 두 문은 모든 성인(聖人)이 밟아 온 길이다. 과거의 성인도 먼저 깨달은 뒤에 닦았고, 그 닦음에 의해 증득(證得)하지 않음이 없었다. 해탈은 깨달음에 의지해서 닦고 익혀야 도달할 수 있다.

- ① 갑: 모든 존재와 현상은 마음[心]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
- ② 갑: 각 종파의 이론을 하나인 근원에 따라 회통해야 한다.
- ③ 을: 돈오는 습기(習氣)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도 가능하다.
- ④ 을: 깨달음의 완성을 위한 수행에 경전 공부는 필요하지 않다.
- ⑤ 갑과 을: 자신을 위한 수행과 중생 구제는 결국 다르지 않다.

7. 근대 서양 사사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행위의 도덕성은 행위의 결과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행위가 일어나는 데 있지 않고, 오직 의무로부터, 즉 도덕 법칙을 위해서만 행위가 일어나는 데 있다.

을: 행위와 품성이 유덕하다거나 악덕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행위와 품성을 바라볼 때 특별한 종류의 쾌락이나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 보 기 >

- ㄱ. 갑: 보편화 가능한 준칙에 맞는 모든 행위는 도덕적이다.
- ㄴ. 갑: 도덕 법칙은 자율적 인간에게 의무로 부과될 수 없다.
- ㄷ. 을: 선과 악은 감정으로 구별되지만 객관적 실재는 아니다.
- ㄹ. 갑과 을: 이성과 감정은 모두 도덕적 행위에 기여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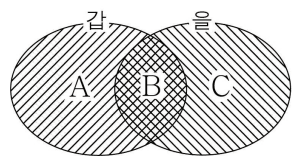
8. 고대 서양 사사가 갑, 중세 서양 사사가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자연법은 명령을 통해 의무를 부여하고 금지를 통해 악을 피하게 하는 올바른 이성이다. 인간과 신의 최초 결속은 인간과 신에게 존재하는 이성의 토대에서 이루어진다.

을: 자연법은 영원법에 대한 이성적 피조물의 참여이다. 이성적 피조물은 영원한 이성을 분유(分有)하고 이를 통해 마땅한 행동과 목적을 향한 자연적 성향을 갖는다.

- ① 갑: 마음의 평온함을 위해 비이성적 정념에도 순응해야 한다.
- ② 갑: 세계 시민으로서의 삶에서 벗어나 자연에 은둔해야 한다.
- ③ 을: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려면 자연적 성향을 배제해야 한다.
- ④ 을: 인간은 신앙을 갖지 않아도 자연적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
- ⑤ 갑과 을: 참된 행복은 이성에 따른 삶만으로도 성취될 수 있다.

9. (가)의 고대 동양 사사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C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대인(大人)은 사람을 해치지 않지만 어짊[仁]과 은혜[恩]를 소중히 여기지도 않는다. 옳고 그름도, 크고 작음도 분별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므로 명성이 들리지 않고 덕으로 칭송될 수 없다. 을: 사람은 나면서부터 모두 소인(小人)이므로, 스승이 없고 예법이 없다면 오직 사사로운 이익밖에는 보지 못한다. 따라서 수양을 거듭하여 본성을 변화시킨 뒤에야 덕을 완성할 수 있다.
(나)	 <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 보 기 >

- ㄱ. A: 인의(仁義)는 사회 혼란의 발생 원인이다.
- ㄴ. B: 예(禮)는 인위적으로 제정된 사회 규범이다.
- ㄷ. C: 성인(聖人)이 되기 위한 수양법이 존재한다.
- ㄹ. C: 사욕을 극복하고 타고난 덕을 회복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한국 사사가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서학(西學)보다 사람의 마음을 심하게 해치는 이단(異端)은 없다. 서양 오랑캐보다 국가에 재앙을 심하게 주는 오랑캐는 없다.

을: 양학(洋學)은 우리의 도(道)와 같은 듯하나 다르다.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하여 한울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조화가 저절로 이루어진다.

- 학생 답안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 성리학적 신분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보았고, ㉡ 백성의 이익을 위해 서양의 과학 기술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비해 을은 ㉢ 남녀뿐만 아니라 노소(老少)의 차별도 철폐해야 한다고 보았고, ㉣ 백성을 이롭게 하는 후천 개벽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갑, 을은 모두 ㉤ 참된 도로써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차례

I 인간과 윤리 사상

A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	02
----------------------------	----

II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

B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의 연원	09
C 공자·맹자·순자의 윤리 [교난도 대비]	13
D 성리학의 양명학 [1등급 대비]	33
E 도덕적 심성 [1등급 대비]	58
F 자비의 윤리	114
G 분쟁과 화합의 윤리	130
H 무위자연의 윤리	146
I 한국과 동양 윤리 사상의 의의	176

III 서양 윤리 사상

J 서양 윤리 사상의 연원	199
K 덕 있는 삶 [교난도 대비]	206
L 행복 추구의 방법	233
M 신앙과 윤리	252
N 도덕의 기초 [교난도 대비]	268
O 옳고 그름의 기준 [1등급 대비]	301
P 현대의 윤리적 삶	343

IV 사회사상

Q 사회사상과 이상 사회	373
R 국가의 윤리	384
S 시민의 윤리 [교난도 대비]	395
T 민주주의 [교난도 대비]	410
U 자본주의	430
V 평화의 윤리	454



최신 연도별 모의고사 10회

01회 2024 실시 3월 학력평가	467
02회 2024 실시 5월 학력평가	470
03회 2024 대비 6월 모의평가	473
04회 2025 대비 6월 모의평가	476
05회 2024 실시 7월 학력평가	479
06회 2024 대비 9월 모의평가	482
07회 2025 대비 9월 모의평가	485
08회 2024 실시 10월 학력평가	488
09회 2024 대비 대학수학능력시험	491
10회 2025 대비 대학수학능력시험	494





무위자연의 윤리

H 01 정답 ③ * 맹자와 장자의 사상

[정답률 90%] 2025 대비 수능 9

고대 동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갑 호연지기(浩然之氣)는 지극히 크고 강하며, 도(道)와 의(義)를 맹자 단서 크고 굳센 도덕적 용기 짝으로 삼는다. 이것은 의가 쌓여서[集義] 이루어지는 것이지 집의(의를 꾸준히 실천함) 한 번의 의로운 행동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 을 좌망(坐忘)은 자신의 육신과 총명(聰明)을 모두 무너뜨려서 그 장자 단서 조용히 앉아 모든 것을 잊음 형체와 지식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다. 그리하여 도와 하나로 융합된 상태이다.

[보기]

- ㄱ. 갑: 대인(大人)도 삶이 궁핍해지면 양지(良知)를 잃게 된다. 맹자 잃지 않음
- ㄴ. 갑: 천명을 받은 군주는 민심을 잃어도 결코 쫓아내서는 안 된다. 맹자 역성혁명을 주장함
- ㄷ. 을: 누구나 마음을 텅 비우면[心齋] 성인(聖人)이 될 수 있다. 장자 심재
- ㄹ. 갑과 을: 본성을 보존하려면 사사로운 욕심을 줄여야 한다. 본성을 훼손할 수 있음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문제+자료 분석]

- 갑 맹자: 이상적 인간인 대인(大人) 또는 대장부(大丈夫)가 되기 위해서는 옳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실천하는 집의(集義)를 통해 길러지는 크고 굳센 도덕적 용기인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갖춰야 함
- 을 장자: 이상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좌망(坐忘), 즉 조용히 앉아서 우리를 구속하는 일체의 것들을 잊어버리고, 마음을 비워서 깨끗이 하는 심재(心齋)의 수양을 해야 함

[보기 분석]

- ㄱ. 갑(맹자)에 따르면 양지는 모든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부여된 도덕적 자각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삶이 궁핍해진다고 해서 잃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올바름)
- ㄴ. 갑(맹자)은 군주가 백성을 고통에 빠뜨리고 나라를 위태롭게 하여 민심을 잃으면 그 군주를 바꿀 수 있다는 역성혁명을 주장하였다.
- ㄷ. 을(장자)은 마음을 비워서 깨끗이 하는 심재의 수양 방법을 통해 이상적 인간인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ㄹ. 갑(맹자)은 성선설을 주장하였으며, 선한 본성을 보존하려면 사사로운 욕심을 줄여야 한다고 본다. 을(장자)은 인간의 자연 그대로의 순수한 본성을 보존하려면 사사로운 욕심을 줄여야 한다고 본다.



최아람 | 2025 수능 응시 · 서울 광영고 졸

맹자의 '무향산 무향심'은 백성들에겐 유효하지만, 선비는 향산이 보장되지 않아도 자신의 마음을 보존할 수 있기에 ㄱ이 오답임을 알 수 있어. 또한, 맹자의 역성 혁명론을 알고 있다면 ㄴ도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지. ㄷ과 ㄹ은 도가 사상가들이 공통으로 주장하는 내용이니 알아둬야 해.

H 02 정답 ① * 장자와 순자의 사상 비교

★ 고난도 [① 49% ② 15% ③ 20% ④ 7% ⑤ 9%] 2024 실시 3월 학평 9

(가)의 고대 동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대인(大人)은 사람을 해치지 않지만 어질 [仁]과 은혜 [恩]를 소중히 장자 여기지도 않는다. 옳고 그름도, 크고 작음도 분별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므로 명성이 들리지 않고 덕으로 칭송될 수 없다.

(가) 을 사람은 나면서부터 모두 소인(小人)이므로, 스승이 없고 예법이 순자 없다면 오직 사사로운 이익밖에는 보지 못한다. 따라서 수양을 거듭하여 본성을 변화시킨 뒤에야 덕을 완성할 수 있다. 이기적 본성을 수양을 통해 변화시켜야 함 단서

(나) 장자만의 입장 을 순자만의 입장 <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장자와 순자의 공통 입장

[보기]

- ㄱ. A: 인의(仁義)는 사회 혼란의 발생 원인이다. 갑(장자): 인위적인 규범은 사회 혼란의 원인임
- ㄴ. B: 예(禮)는 인위적으로 제정된 사회 규범이다. 갑(장자), 을(순자)의 공통점
- ㄷ. C: 성인(聖人)이 되기 위한 수양법이 존재한다. B
- ㄹ. C: 사욕을 극복하고 타고난 덕을 회복해야 한다. 을(순자): 인간은 악한 본성을 타고남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제+자료 분석]

- 갑 장자: 대인(大人)은 어질 [仁]을 소중히 여기지 않음. 선과 악,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음
- 을 순자: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인 존재이므로 성인의 가르침에 따른 수양을 거듭하여 본성을 변화시켜야 함

[보기 분석]

- ㄱ. 갑(장자)은 인의와 같은 인위적인 규범이 사회 혼란의 원인임을 강조하고, 세속을 초월해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정신적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을(순자)은 악한 본성을 타고나는 인간이 성인이 제정한 인의와 같은 인위적인 규범을 익혀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야 사회 질서가 유지된다고 본다.
- ㄴ. 갑(장자)은 예는 인위적으로 제정된 사회 규범이며 이는 사회 혼란의 원인이 될 뿐이라고 본다. 을(순자)은 예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교화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성인이 제정한 인위적인 규범이라고 본다.
- ㄷ. 갑(장자)은 수양을 통해 절대적 자유의 경지에 이른 인간을 성인이라고 하였으며, 성인이 되기 위해 좌망과 심재의 수양이 필요하다고 본다. (올바름)
- 을(순자)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악하며, 사람이 선하게 되는 것은 화성기위의 수양방법을 실천한 결과라고 본다.
- ㄹ. 을(순자)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 악하다고 본다. 따라서 을(순자)은 타고난 덕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타고난 덕을 교육과 수양을 통해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 틀렸나?

ㄷ을 옳은 선지로 판단한 학생은 동양 윤리 사상의 경우 수양을 통해 도달하는 이상적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인'이라는 용어는 유교 사상가와 도가 사상이 모두 사용하는 용어로 이상적 경지에 이른 인간을 말한다.

근대 한국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④ 서양 세력을 공격하자는 것은 우리 쪽 사람의 주장이고, 화친(和親)하자는 것은 저쪽 사람의 주장이다. 전자를 따르면 옛 문물과 제도를 보전할 수 있지만, 후자를 따르면 인류가 금수(禽獸)의 지경이 될 것이다.
- ⑤ 서양 사람은 말에 차례가 없고 글에 분별이 없으며 도무지 한울님을 위하는 단서가 없다. 본래의 마음을 지키고 그 기운을 바르게 하여[守心正氣] 한울님의 성품을 거느리고 한울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조화가 이루어진다.
- ⑥ 인간은 누구나 마음에 한울님을 모시고 있는 존재임

- ① 갑: 신분에 따른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위정척사 성리학적 신분 질서 옹호
- ② 갑: 서양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부국강병을 이루어야 한다. 위정척사 서양과의 교류 반대
- ③ 을: 고유 사상을 기반으로 서양의 학문과 종교를 수용해야 한다. 동학 배척
- ④ 을: 누구나 마음 안에 한울님을 섬기고 있으므로 존중받아야 한다. 동학 시천주 사상
- ⑤ 갑과 을: 성리학적 질서와 제도를 타파하여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 갑(위정척사 사상): 성리학적 질서와 제도 옹호

| 문제+자료 분석 |

- 갑 이항로(위정척사 사상): 올바른 것, 즉 유교적 가치 체계와 문물을 지키고 사악한 것, 즉 천주교와 서양 문물을 배척해야 함. 만일 그렇지 못하면 도덕성이 무너지고 금수의 나라가 될 수 있음
- 을 최제우(동학 사상): 인간은 누구나 마음에 한울님을 모시고 있는 존재이므로 본래의 마음을 지키고 그 기운을 바르게 하는 수행을 해야 함 [수심정기]

| 선택지 분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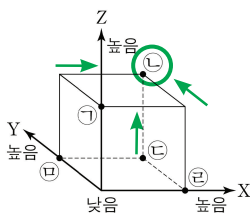
- ① 갑(위정척사 사상)은 성리학적 신분 질서를 옹호한다.
- ② 갑(위정척사 사상)은 서양과의 교류를 반대한다.
- ③ 을(동학 사상)은 서양의 학문과 종교의 수용을 반대한다.
- ④ 을(동학 사상)은 인간은 누구나 마음 안에 한울님을 섬기고 있으므로 존엄한 존재라는 시천주 사상을 토대로 인간 평등을 주장한다. (올바름)
- ⑤ 갑(위정척사 사상)은 성리학적 질서와 제도의 유지를 강조한다. 반면 을(동학 사상)은 성리학적 신분 질서를 비판하면서 신분과 계급 질서가 모두 사라진 평등한 사회를 실현해야 함을 강조한다.

* 신흥 민족 종교(동학, 증산교, 원불교)의 공통점

- 내세보다 현세에서 이상 세계를 이룰 수 있다고 봄
- 우리 겨레의 고유 사상을 바탕으로 유·불·도 사상을 주체적으로 수용함
- 후천 개벽 사상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열고자 하는 백성의 열망에 부응함

(가), (나)는 근대 한국 사상이다. (가) 사상에 비해 (나) 사상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중에서 고른 것은?

- (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을 도(道)라 하고, 때에 따라 변하고 바뀌는 것을 기(器)라 한다. 그러므로 만약 시대에 합당하고 백성에게 이익이 된다면 비록 오랑캐의 법일지라도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 동도서기론(신기선) 서양의 과학기술을 수용해야 함
- (나) 내가 서양의 도를 듣고 두려워할 때, 밖으로 신령스러운 기운을 접하고 안으로 말씀이 내려왔지만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기를 바르게 한[守心正氣] 후 물으니,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니라.”라고 하셨다. 오심즉여심(肅心卽汝心) → 동학(최제우)



- X: 후천개벽(後天開闢)을 강조하는 정도 ↑ 높음
- Y: 신흥 종교로서 민족성을 강조하는 정도 ↑ 높음
- Z: 유교적 신분 질서의 변혁을 강조하는 정도 ↑ 높음

- ① ㉠ ② ㉡ ③ ㉢ ④ ㉣ ⑤ ㉣

| 문제+자료 분석 |

- (가) 동도서기론(신기선): 유교적 가치와 질서 [東道(동도)] 를 지키면서 서양의 우수한 과학 기술 [西器(서기)] 을 수용해야 함
- (나) 동학(최제우): 모든 사람은 한울님을 자기 안에 모시고 있으므로, 마음을 지켜 기운을 바로 해야 함 [수심정기]. 또한 후천개벽을 통해 유교적 신분 질서를 변혁하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실현해야 함

| 선택지 분석 |

- (가) 동도서기론의 입장에 비해 (나) 동학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 X: 후천개벽을 강조하는 정도 → 높음
 - Y: 신흥 종교로서 민족성을 강조하는 정도 → 높음
 - Z: 유교적 신분 질서의 변혁을 강조하는 정도 → 높음
- ② 따라서 (가)의 사상에 비해 (나) 사상이 갖는 상대적 특징은 ㉡이다.

* 유교적 질서와 서양 문물에 대한 입장

	위정척사 사상	동도서기론	동학
유교적 질서	보존해야 함	보존해야 함	변혁해야 함
서양 문물	모두 배척해야 함	과학 기술은 수용해야 함	서학(천주교)을 배척해야 함

고대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갑 정의란 지배하는 이들의 이익이다. 지배하는 이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려고 한다. 강한 자가 권력을 강자의 이익을 위해 법률을 제정함 행사하므로 정의는 더 강한 자의 이익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단서
- 을 정의는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가 각자 일에 충실하며 다른 계층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각 계층에 적합한 덕들이 국가 안에 보전된다. 정의는 각자 덕을 가지고 자기 일을 잘하는 것이다. 단서 정의는 각 계층이 각자의 일을 하는 것임

- ① 갑: 법은 통치자와 피치자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소피스트 통치자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
- ② 갑: 정의는 특정 계층의 사익이 아니라 보편적 진리에 근거한다. 소피스트 보편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음
- ③ 을: 용기는 기개가 영혼을 지배함으로써 발휘되는 덕이다. 플라톤 이성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 ④ 을: 통치자는 지혜와 더불어 용기와 절제의 덕도 갖추어야 한다. 플라톤 지혜, 용기, 절제를 갖춘 상태가 정의임
- ⑤ 갑과 을: 누가 통치하든 상관없이 정의로운 국가가 될 수 있다. → 을(플라톤):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어야 함

| 문제+자료 분석 |

- 갑 소피스트(트라시마코스): 강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므로 정의는 강자의 이익에 불과함
- 을 플라톤: 영혼이 이성, 기개, 욕구 세 부분으로 구성되듯이 이상적인 국가는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계층으로 구성됨.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세 계층의 사람들이 각각 다른 계층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룬 상태가 정의임

| 선택지 분석 |

- ① 갑(트라시마코스)에 따르면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며, 법은 통치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 ② 갑(트라시마코스)은 정의는 강자의 이익일 뿐이며, 보편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 ③ 을(플라톤)에 따르면 용기는 기개가 이성의 지배를 받아 발휘되는 덕으로서, 이성의 인도를 받아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에 대한 신념을 보전하는 덕이다. 합정
- ④ 을(플라톤)에 따르면 정의로운 국가는 통치자가 지혜의 덕을, 방위자가 용기의 덕을, 생산자가 절제의 덕을 발휘하면서 조화를 이룰 때 실현된다. 이때 세 계층은 절제의 덕을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통치자는 지혜, 용기, 절제의 덕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⑤ 을(플라톤)에 따르면 정의로운 국가가 실현되려면 오랜 교육을 통해 지혜의 덕을 갖춘 철학자가 통치해야 한다.

다음은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인간이든 국가든 어떤 좋음은 목적으로 추구한다. 어떤 것의 좋음은 그 기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기능은 자신의 고유한 덕에 따라 수행될 때 완성된다. 인간이 지닌 고유한 기능은 영혼의 이성적 활동이다. 인간의 좋음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며 최고의 좋음은 완전한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다. 인간의 덕은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으로 나눌 수 있다. 단서 행복은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며, 인간은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을 갖추어야 함 → 아리스토텔레스

- ① 악행은 무지가 아니라 언제나 자제력 없음에서 비롯된다. 무지와 자제력 없음 모두에서
- ② 인간의 좋음 중 자족적 좋음이자 완전한 좋음은 행복뿐이다. → 행복은 궁극적이며, 자족적이며, 모든 행동의 목적임
- ③ 모든 덕은 본성적으로 생겨나지는 않지만 습관으로 완성된다. 품성적 덕
- ④ 품성적 덕은 중용에 맞는 감정과 행위를 판별해 주는 앎이다. 지성적 덕
- ⑤ 개인의 최고의 좋음과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함

| 문제+자료 분석 |

- 아리스토텔레스: 인간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 즉 최고선(最高善)은 행복임. 행복이란 덕에 따르는 정신(영혼)의 활동이며, 덕(탁월성)은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영혼의 상태임. 덕은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으로 나눌 수 있음

| 선택지 분석 |

- ①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지로 인해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앎이 반드시 덕행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앎과 다르게 악행을 할 수 있다고 본다.
-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좋음 중 자족적 좋음이자 완전한 좋음은 행복뿐이라고 본다. 행복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여러 선 중에서 최고의 선이므로 궁극적이고 자족적이며, 모든 행동의 목적이자 완전한 좋음이라는 것이다. 끝
- ③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품성적 덕과 지성적 덕 모두 본성적으로 생겨나지는 않지만, 품성적 덕은 습관으로 완성되는 덕이며, 지적인 덕은 습관이 아닌 교육과 학습을 통해 형성되는 덕이다.
- ④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지성적 덕인 실천적 지혜는 과도하거나 부족하지 않은 감정이나 행위, 즉 중용에 맞는 감정이나 행위를 판별해 준다.
- 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 개인의 최고의 좋음이자 국가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본다.

*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적인 덕과 품성적 덕

	지적인 덕	품성적 덕
예	실천적 지혜, 철학적 지혜	용기, 절제, 정의, 관대함 등
습득 방법	교육과 학습을 통해 얻음	중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실천할 때 얻음
역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결정을 내림	중용을 지키며 과도함의 악덕과 부족함의 악덕을 피하고 올바른 행위를 하게 함

다음을 주장한 중세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를 표시한 학생은? [3점]

인간이 자연적 성향을 갖는 것은 자연법에 귀속된다. 이 중에서 인간이 이성에 따라 행위하려는 성향을 갖는 것은 옳바르다.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라는 자연법의 첫 번째 계율은 자연법의 다른 모든 계율의 기초가 된다.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은 신의 명령인 영원법에 근거를 둔 자연법을 따라야 한다.
→ 아퀴나스: 자연법 준수는 신의 뜻을 실현하는 것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인간이 제정한 실정법은 자연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자연법은 실정법의 근거		✓			✓	✓
인간은 자연법을 따름으로써 영원법에 참여할 수 있다. 영원법은 자연법의 근거			✓		✓	✓
인간은 자연법의 인식만으로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내세에서 신과 합일해야		✓		✓	✓	
인간은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자연법을 따라야 한다. 이성에 근거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 문제+자료 분석 |

- 중세 서양 사상가 아퀴나스: 신의 명령인 영원법은 인간 본성에 자연법의 형태로 담겨 있음. 인간은 이성을 발휘하여 자연법을 인식할 수 있으며, 그것을 준수함으로써 신의 뜻을 실현해야 함.

| 선택지 분석 |

- 첫 번째: 아퀴나스에 따르면 인간이 국가를 운영할 때 수립한 실정법은 자연법에 기초해야 하며, 자연법을 위배하는 실정법은 수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연법이 실정법보다 신의 뜻에 가깝기 때문이다. → ○
- 두 번째: 아퀴나스에 따르면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이성 덕분에 인간은 신이 인간 본성에 부여한 자연법을 인식할 수 있다. 인간이 자연법을 인식하고 따를 수 있는 궁극적인 근거는 이 모든 과정이 신의 명령인 영원법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법을 인식하고 따르는 일을 통해 우주를 관장하는 신의 명령과 질서에 참여할 수 있다. → ○
- 세 번째: 아퀴나스에 따르면 인간의 완전하고도 영원한 행복은 내세에 신과 합일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러한 상태는 자연법의 인식과 같은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으며, 신의 은총과 사랑 등이 있어야만 도달할 수 있다. → ✕
- 네 번째: 아퀴나스에 따르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신으로부터 이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자연법을 인식하고 준수할 수 있다. 즉, 모든 인간은 신의 피조물이자 이성을 지닌 존재이므로 자연법의 내용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 ○

⑤ 따라서 모두 옳게 '✓'를 표시한 학생은 무이다.

M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중세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갑: 인간의 최고선은 행복이며, 행복은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다. 지성적 덕은 대체로 교육을 통해 생겨나고 성장하며, 품성적 덕은 습관의 결과로 생겨난다.
② 을: 인간의 최고선은 창조되지 않은 선, 곧 신이다. 신의 섭리 아래 있는 모든 것은 영원법에 의해 규제되며, 영원법을 인간의 이성으로써 인식한 것이 자연법이다.
단서: 인간은 이성을 통해 자연적 성향을 인식하고 따라야 함

- ① 갑: 행복은 유일한 선이며 덕을 갖추어야만 성취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다양한 선이 존재함
② 갑: 실천적 지혜는 중용을 파악하게 해 주는 품성적 덕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지성적
③ 을: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신의 영원법에 참여할 수 있다. 아퀴나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에 적용됨
④ 을: 인간의 최종적인 목적은 신의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아퀴나스 신과 하나가 되는
⑤ 갑과 을: 인간의 노력만으로 완전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갑(아리스토텔레스): ○, 을(아퀴나스): ✕

| 문제+자료 분석 |

- 갑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의 모든 행위는 선(좋은)을 목적으로 추구함. 인간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 즉 최고선은 행복이며, 행복이란 덕에 따르는 정신(영혼)의 활동임
- 을 아퀴나스: 영원법은 신의 예지와 의지로 정립된 영원불변하는 질서와 법칙이며 모든 사물의 본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연적 성향에 반영되어 있음. 인간은 이성을 통해 자연적 성향을 인식하고 따름으로써 신의 뜻을 깨닫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

| 선택지 분석 |

- ① 갑(아리스토텔레스)은 행복이 덕을 갖출 때 성취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행복을 유일한 선이라고 보지 않는다. 행복은 최고의 선이지만, 다른 선들(건강, 재산, 우정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합정
- ② 갑(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실천적 지혜를 통해 중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실천적 지혜는 지성적 덕이지 품성적 덕이 아니다.
- ③ 을(아퀴나스)에 따르면 신의 영원법은 모든 존재에 적용되는 법칙이므로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신의 영원법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성에 의해 인식된 영원법인 자연법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인간뿐이다. 꿀팁
- ④ 을(아퀴나스)에 따르면 인간의 최종적 목적은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은총을 통해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 ⑤ 갑(아리스토텔레스)은 지적인 덕과 품성적 덕을 갖추려는 인간의 노력을 통해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을(아퀴나스)은 완전한 행복에 도달하려면 신의 은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 왜 틀렸나?

①번 선지에는 간단한 함정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최고선으로 본다. 그러나 '최고선'이 곧 '유일한 선'은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건강, 재산, 우정 같은 다양한 선이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가) 조건부 의무론 vs (나) 규칙 공리주의
현대 윤리 사상 (가), (나)의 입장에서 <사례> 속 K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가) 조건부 의무론은 다른 조건부 의무와 갈등하지 않으면 실제적 의무가 된다. 다른 조건부 의무와 갈등하면 우선시되는 의무가 실제적 의무가 되고 나머지 의무는 유보된다. → 조건부 의무론
- (나) 어떤 행위가 다른 대안보다 더 큰 공리를 산출하는 규칙에 의해 요구될 때만 그 행위는 옳다. 공리의 원리에 부합하는 도덕 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 → 규칙 공리주의

<사례>

친구를 만나러 약속 장소로 가던 K는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보았다. K는 계속 길을 가야 할지 그 사람을 도와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① (가): 유일한 도덕 원리인 정언 명령을 따르는 행위를 선택하세요.
→ 조건부 의무론에서는 정언 명령만 무조건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삼지 않음
- ② (가): 현재의 상황에서 직관적으로 더 중요시되는 행위를 선택하세요.
→ 두 가지 이상의 도덕 원칙들이 부딪힐 때에는 직관과 상식에 더 중요한 의무를 선택해야 함
- ③ (나): 좋은 결과를 낳는 행위보다 전의지를 따르는 행위를 선택하세요.
→ 공리주의는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을 추구함
- ④ (나): 도덕 규칙의 공리보다 개별 행위의 공리를 계산하여 행위를 선택하세요.
- ⑤ (가): (나): 최대 행복의 원리에 부합하는 도덕 규칙에 따르는 행위를 선택하세요. → 규칙 공리주의에만 해당함

| 문제+자료 분석 |

- (가) 조건부 의무론(현대 칸트주의): 현대 칸트주의는 로스의 조건부 의무론으로 대표되는데, 칸트 사상의 난점인 정언 명령의 엄격성과 절대적인 도덕적 의무들이 상충하는 경우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론임
- (나) 규칙 공리주의: 규칙 공리주의는 개별적 행위의 결과를 따지는 행위 공리주의와 달리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가능성이 큰 규칙을 따르므로써 공리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이론임
- 사례 속 K: '약속을 지키는 것'과 '길에 쓰러진 사람을 돕는 것' 두 가지 선택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

| 선택지 분석 |

- ① 조건부 의무론이 아닌, 칸트가 할 조언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가)의 입장인 현대 칸트주의인 조건부 의무론에서는 상황 속에서 보다 직관적으로 중요한 의무를 따르라고 조언한다. 조건부 의무는 정언 명령보다는 느슨한 원칙으로, 도덕 원칙도 인간의 직관과 상식에 따라 유보될 수 있다. 주의
- ② 조건부 의무론에서는 문제 상황과 같이 두 가지 의무가 부딪히는 경우 직관과 상식에 의해 우선시되는 의무가 실제적 의무가 된다고 본다. 따라서 직관적으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을 실제적 의무로 선택하고 행위하라고 명령할 것이다.
- ③ 공리주의는 동기가 아닌 결과로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므로, 규칙 공리주의에서는 좋은 결과를 낳는 규칙을 선택하고 따르라고 조언할 것이다. 선의지를 따르는 행위를 선택하라는 것은 칸트의 의무론 입장에서 할 조언에 해당한다.
- ④ 행위 공리주의에서 조언할 내용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행위 공리주의는 주어진 상황에서 모든 행위의 유용성을 계산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 ⑤ 규칙 공리주의에서 조언할 내용에 해당하므로 (가), (나)의 공통적인 조언으로 적절하지 않다.

(가)의 고대 서양 사상이 갑, 근대 서양 사상이 을과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진술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에피쿠로스는 쾌락 그 자체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쾌락을 선택하는 것도 항상 에피쿠로스를 피하는 것도 아니다. 고통의 제거를 넘어서는 쾌락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서 쾌락이란 몸과 마음에 고통이 없는 상태임

(가) 벤담 고통의 가치를 측정할 때 그것의 강도, 지속성, 범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단서 쾌락의 계산법(양적 공리주의)

(가) 병: 쾌락은 목적으로서 바람직한 유일한 것이다. 우리는 가능한 한 고통이 없고 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최대한의 쾌락을 만끽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서 질적 공리주의

(나) 에피쿠로스와 벤담만의 공통 입장

에피쿠로스의 입장

에피쿠로스, 벤담, 밀의 공통 입장

벤담과 밀만의 공통 입장

<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과 을만의 공통 입장
C: 을과 병만의 공통 입장
D: 갑과 을과 병의 공통 입장

[보기]

- ㄱ. A: 사려 깊음과 정의는 궁극적으로 쾌락에 의해 가치가 결정된다. 갑(에피쿠로스), 을(벤담), 병(밀): ○
- ㄴ. B: 행위의 선악을 평가하기 위한 보편적 기준이 존재한다. 갑(에피쿠로스), 을(벤담), 병(밀): ○
- ㄷ. C: 도덕적 이상 실현을 위해 공적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갑(에피쿠로스): X, 을(벤담): ○, 병(밀): ○
- ㄹ. D: 자기 자신의 고통에 대한 경험이 행위의 동기를 유발한다. 갑(에피쿠로스), 을(벤담), 병(밀): ○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문제+자료 분석 |

- 갑 에피쿠로스: 모든 욕구를 적극적으로 충족하는 데서 오는 쾌락이 아니라 고통을 제거함으로써 주어지는 쾌락을 추구해야 함
- 을 벤담: 쾌락의 양을 계산할 수 있고, 이때 고려해야 할 기준에는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다산성, 순수성, 범위가 있음
- 병 밀: 질적으로 높은 쾌락은 낮은 쾌락보다 양과 무관하게 더 가치 있으며,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질적으로 높고 고상한 쾌락을 추구해야 함

| 보기 분석 |

- ㄱ. 갑(에피쿠로스), 을(벤담), 병(밀)은 모두 쾌락주의 사상가이다. 이들은 모두 사려 깊음과 정의 등 인간이 추구하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쾌락의 산출 여부에 의해 가치가 결정된다고 본다.
- ㄴ. 갑(에피쿠로스), 을(벤담), 병(밀)은 모두 '쾌락은 선, 고통은 악'이라는 보편적 기준에 따라 행위의 선악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 ㄷ. 갑(에피쿠로스)은 공적인 삶과 인간관계는 집착과 다툼, 좌절과 분노 등 고통과 불안을 일으키기 때문에 공적인 삶을 멀리할 때 도덕적 이상인 평정심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함정 그러나 을(벤담)과 병(밀)은 공리주의적 이상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실현을 위해 공적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 ㄹ. 갑(에피쿠로스), 을(벤담), 병(밀)은 모두 고통을 피하려는 인간의 본성에 근거하여 자기 자신의 고통에 대한 경험이 고통을 제거하려는 행위의 동기를 유발한다고 본다.



최아람 | 2025 수능 응시 · 서울 광영고 졸

이 문제는 쾌락주의 사상가들의 공통점을 숙지하고 있었다면 ㄱ, ㄴ의 내용이 D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어. 각 사상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며 공부하는 것이 중요해.

(가)의 고대 서양 사사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단서

갑(플라톤)의 비유에 따르면 죄수는 동굴 바깥으로 기어올라가서 물속에 플라톤 비친 상(像)들, 이것들의 실물들, 하늘의 별들 그리고 태양 자체를 순서대로 보게 된다. **선의 이데아**

(가) 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좋음은 인간적인 좋음이므로 검토해야 할 아리 덕은 인간적인 덕, 즉 신체의 덕이 아니라 영혼의 덕이다. 그렇기에 스토 행복은 영혼의 활동이다. 텔레스 **단서** 행복이란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임

플라톤만의 입장 갑 **아리스토텔레스만의 입장** 을

(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통 입장**

〈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과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보기]

ㄱ. A: 본래 비이성적이지만 이성에 따를 수 있는 영혼의 부분이 있다.
갑(플라톤): ○, 을(아리스토텔레스): ○

ㄴ. B: 정치적 공동체 없이는 개인의 자족적 삶은 불가능하다.
갑(플라톤): ○, 을(아리스토텔레스): ○

ㄷ. B: 좋음은 무엇인지 아는 덕은 철학자만이 지닌 지혜이다.
갑(플라톤): ○, 을(아리스토텔레스): X

ㄹ. C: 개별적 좋음만 있을 뿐 이것과 독립된 보편적 좋음은 없다.
갑(플라톤): X, 을(아리스토텔레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단서+발상

단서 • 갑: 동굴의 비유

• 을: 행복은 영혼의 활동

발상 갑은 플라톤이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KEY 플라톤은 개별적 좋음과 독립된 보편적인 좋음이 존재한다고 본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상을 개별적인 실체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세계로 보면서, 그 자체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보편적인 좋음은 없다고 본다.

문제 풀이 순서

step 1 제시문의 사상이 누구인지 파악한다.

- 갑은 이상주의적 관점을 지닌 플라톤이다.
- 을은 현실주의적 관점을 지닌 아리스토텔레스이다.

step 2 벤다이어그램의 A~C에 대한 갑, 을 사상의 입장을 판단한다.

보기 분석

ㄱ. A: 본래 비이성적이지만 이성에 따를 수 있는 영혼의 부분이 있다.

- 갑(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이 이성, 기개, 욕구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그중 이성이 비이성적인 부분인 기개와 욕구를 다스릴 때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기개와 욕구는 본래 영혼의 비이성적인 부분이지만 이성에 따를 수 있는 영혼의 부분이다.
- 을(아리스토텔레스)은 감각이나 욕구는 영혼의 비이성적 부분이지만 이성을 따를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인간의 생리적 욕구나 본능과 같은 것은 이성과 관련이 없는 영역이라고 본다.

* ㄱ은 갑(플라톤)과 을(아리스토텔레스)의 공통 입장에 해당하므로 A가 아닌 B에 들어가야 한다.

ㄴ. B: 정치적 공동체 없이는 개인의 자족적 삶은 불가능하다.

- 갑(플라톤)은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세 계층의 사람들이 각각 다른 계층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정의로운 국가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면서, 정의로운 국가에서 개인은 자족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을(아리스토텔레스)은 국가를 자급자족적이고 구성원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포괄적인 공동체라고 본다.
- * ㄴ은 갑(플라톤)과 을(아리스토텔레스)의 공통 입장에 해당한다.

ㄷ. B: 좋음은 무엇인지 아는 덕은 철학자만이 지닌 지혜이다.

- 갑(플라톤)은 좋음의 이데아는 오랜 교육과 훈련을 거쳐 지혜의 덕을 갖춘 철학자만이 인식할 수 있다고 보면서, 이러한 철학자가 나라를 통치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 을(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좋음은 무엇인지 아는 덕은 실천적 지혜이며, 실천적 지혜는 철학자만이 지닌 지혜는 아니다. 그는 실천적 지혜를 통해 모든 사람이 good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 * ㄷ은 갑(플라톤)만의 입장에 해당하며, 을(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B가 아닌 A에 들어가야 한다.

ㄹ. C: 개별적 좋음만 있을 뿐 이것과 독립된 보편적 좋음은 없다.

- 갑(플라톤)은 개별적 좋음과는 독립된 보편적 좋음, 즉 이데아가 현실계와 구분되는 이데아계에 있다고 본다.
 - 을(아리스토텔레스)은 현실 세계의 ' 좋음 ' 혹은 ' 좋은 것 '이라고 말해지는, 개별적인 것들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하는 ' 그 자체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좋음 ', ' 공통적으로 서술될 수 있는 어떤 단일한 좋음 '은 없다고 본다. **합정**
- * ㄹ은 갑(플라톤)의 입장에는 부합하지 않으며, 을(아리스토텔레스)만의 입장에 해당한다.

★ 정답은 ③ ㄴ, ㄹ이다.

왜 틀렸나?

④를 답으로 고른 학생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본 개념을 더 충실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 플라톤은 좋음의 이데아를 지혜의 덕을 갖춘 철학자만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적 지혜를 통해 모든 사람이 good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영혼에 대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비교 ★ 고난도 핵심 개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영혼의 구성	• 영혼은 세 부분으로 나뉨 → 이성, 기개, 욕망 • 이성이 영혼의 나머지 부분을 지배해야 함	• 영혼은 세 부분으로 나뉨 → 이성적 부분(이성), 이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감각, 욕구), 이성과 관련이 없는 부분(성장, 영양) • 이성적 부분이 비이성적 부분을 조절해야 함
영혼의 목적	• 영혼의 목적은 이데아의 세계를 인식하고, 선의 이데아를 추구하는 것 • 이성적 활동이 영혼의 최고의 기능	• 영혼의 목적은 삶에서 덕을 실천하고 행복을 이루는 것 • 이성적 활동을 통해 덕을 실현하는 것이 영혼의 최종 목표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신은 곧 자연이다. 개별적 존재는 신의 속성을 어떤 일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양태이다. 정서는 신체의 활동 능력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신체의 변용인 동시에 그러한 변용의 관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변용의 타당한 원인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그 정서를 능동이라고 이해하고, 그렇지 않다면 수동적 감정(예: 기쁨)이라고 이해한다. → 스피노자
수동적 감정 (=정념, 예: 슬픔, 불안)

- ① 신은 유일한 실체로서 모든 자연 세계의 안과 밖에 존재한다.
자연 그 자체임
- ② 쾌락을 억제해야만 이성의 힘으로 비로소 지복에 도달할 수 있다.
정념
- ③ 자연은 인과적 관계를 넘어서 목적의 필연성으로 정해져 있다.
넘어서지 않음 목적은 존재하지 않음
- ④ 정념에 속박되지 않은 사람도 원인에 대한 명확한 관념에 의존한다.
이성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 ⑤ 선은 양태가 지닌 특성으로서 자기 보존을 위한 활동 능력 그 자체이다.
선과 악으로 판단할 수 없음

☀ 단서+발상

- ☞ 단서 신은 곧 자연이다, 개별적 존재는 양태이다.
- ☞ 발상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스피노자이다.
- ☞ KEY 스피노자는 '신, 즉 자연'을 존재하는 유일한 실체라고 보며, 개별적 사물은 양태라고 본다.

| 문제 풀이 순서 |

step 1 제시문의 사상가가 누구인지 파악한다.

-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신은 곧 자연이다.', '개별적 존재는 양태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스피노자임을 파악할 수 있다.
- 인간의 감정을 능동적 감정과 수동적 감정으로 구분하여 언급한 부분을 통해서도 스피노자임을 알 수 있다.

step 2 선택지의 내용이 사상가의 입장에 부합하는지 판단한다.

| 선택지 분석 |

- ① 신은 유일한 실체로서 모든 자연 세계의 안과 밖에 존재한다.
- 스피노자에 따르면 신은 유일한 실체이며, 자연 밖에 존재하는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자연 그 자체이다(범신론).
 - 따라서 신은 자연 안에 내재하며, 자연의 외부에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 * ①은 스피노자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 ② 쾌락을 억제해야만 이성의 힘으로 비로소 지복에 도달할 수 있다.
- 스피노자에 따르면 자기 보존이 증진될 때 느껴지는 감정이 능동적 감정이며, 자기 보존이 감소하거나 저해될 때 느껴지는 감정이 수동적 감정(정념)이다. 능동적 감정의 예로는 기쁨이 있으며, 수동적 감정의 예로는 슬픔이 있다.
 - 따라서 스피노자는 기쁨, 쾌락과 같은 감정을 억제해야 한다고 보지 않으며, 정념에 예측되는 것을 경계한다.
 - * ②는 스피노자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 자연은 인과적 관계를 넘어서 목적의 필연성으로 정해져 있다.

- 스피노자에 따르면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은 원인과 결과로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 스피노자에 따르면 자연은 인과적 관계를 넘어서지 않으며, 자연의 본성은 인과적 필연성이다. 따라서 자연에 별도의 필연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함정
- * ③은 스피노자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④ 정념에 속박되지 않은 사람도 원인에 대한 명확한 관념에 의존한다.

- 스피노자가 말하는 정념에 속박되지 않은 사람이란 이성을 통해 자연의 인과적 필연성을 인식하여 마음의 평정과 자유를 얻은 사람이며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 원인과 결과에 대한 명확한 관념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다.
- 반면 스피노자는 정념에 속박된 사람은 이성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여 필연적 인과 질서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슬픔, 불안과 같은 정념에 휘둘러 올바른 삶을 살 수 없다고 본다.
- * ④는 스피노자의 입장에 부합한다.

⑤ 선은 양태가 지닌 특성으로서 자기 보존을 위한 활동 능력 그 자체이다.

- 스피노자는 인간의 자기 보존을 위한 활동 능력은 자연의 다른 존재도 지닌 능력으로 그 자체를 선이나 악이라고 보지 않는다. 함정
- 스피노자는 자기 보존과 활동 능력을 증대하거나 촉진하는 것을 선이라고 본다.
- * ⑤는 스피노자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 정답은 ④이다.

☹ 왜 틀렸나?

이 문제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은 낯선 선지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③번 선지의 경우 '신은 자연 바깥에 존재하지 않으며 자연 그 자체이다.'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을 조금 다르게 진술했을 뿐이며, ⑤번 선지의 경우 '자기 보존을 위한 활동 능력은 인간은 물론 자연의 다른 사물에게도 있는 능력이라는 교과서의 기본 개념과 연결지었다면 어렵지 않게 판단이 가능하다.

* 스피노자의 사상 ★ 고난도 핵심 개념

개념	의미
신	신은 유일한 실체로서 자연 그 자체임
실체와 양태	실체는 신뿐이며, 모든 사물은 신의 양태임
필연론	자연은 원인과 결과의 필연적 관계로 이루어짐
정념 (Passions)	인간을 외부 원인에 의해 휘둘리게 하는 것
자유	자유는 이성을 통해 정념을 극복하고 필연성을 이해하는 것
최고선 (지복)	지복은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을 통해 실현됨
자기 보존	모든 존재는 자기 보존의 욕구 (conatus)를 가짐



최아람 | 2025 수능 응시 · 서울 광영고 졸

④, ⑥가 아주 헷갈리는 문제였어. 하지만 자기보존을 위한 활동 능력인 코나투스(자기보존)가 곧 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로 ⑤를 지울 수 있었지. 그리고 정념에 속박되지 않은 사람이나 그 이상의 신 역시 인과에 예측된다는 점을 떠올려 ④를 정답으로 고를 수 있었어.

사회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 자유를 사랑하고 타인을 지배하기 좋아하는 존재인 인간이
홉스 국가 안에서 살기로 한 궁극적 목적은 자기 보존과 만족된
사회 계약의 목적
삶이다. 인간은 자연 상태의 비참한 전쟁 상태로부터 빠져
나오기 위해 사회 계약을 맺는다. 단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 Ⓑ 최고 권력은 구성원들의 재산을 동의 없이 취할 수 없다.
로크 정부의 목적은 구성원들의 재산을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서 사회 계약의 목적
구성원들은 이 목적을 위해서 사회 계약을 맺었기에 이러한
권리를 당연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보기]

- ㄱ. 자연 상태에서는 욕구 충족을 위한 무력 행사가 가능하다.
홉스 자기 보존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음
- ㄴ. 갑: 구성원들은 자발적 계약을 통해 하나의 인격으로 통일된다.
홉스 국가
- ㄷ. 을: 재산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사회 계약 이후 발생한다.
로크 자연 상태에도 지니고 있음
- ㄹ. 갑과 을: 자연 상태에서도 양도 불가능한 개인의 권리가 있다.
갑(홉스): 자기 보존, 을(로크): 생명, 자유, 재산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단서+발상

- 단서 • 갑: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임
• 을: 정부는 구성원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함
- 발상 갑은 홉스, 을은 로크이다.
- KEY 홉스와 로크의 사회 계약론의 내용 중 자연 상태에 대한 입장, 사회 계약을 맺는 목적에 대한 견해 등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 문제 풀이 순서 |

step 1 제시문의 갑, 을 사상가들이 누구인지 파악한다.

- 갑은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계약을 맺게 된다는 홉스이다.
- 을은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는 양도 불가능한 권리라고 보는 로크이다.

step 2 각 사상가의 입장이 <보기>의 ㄱ~ㄹ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지 판단해 본다.

| 보기 분석 |

- ㄱ. 자연 상태에서는 욕구 충족을 위한 무력 행사가 가능하다.
- 갑(홉스)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만물에 대한 무제한적 자유와 권리를 평등하게 지닌다고 본다.
 - 갑(홉스)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은 이러한 무제한적 권리를 토대로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한 무력 행사가 가능하며, 이 때문에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가 된다.
- * ㄱ은 갑(홉스)의 입장에 부합한다.

ㄴ. 갑: 구성원들은 자발적 계약을 통해 하나의 인격으로 통일된다.

- 갑(홉스)에 따르면 인간은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 신의(信義) 계약을 맺음으로써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의 인격, 즉 국가로 통일된다. 합정
 - 갑(홉스)에 따르면 권리의 양도는 개인들 상호 간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렇게 탄생한 국가는 주권자이므로 주권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꼼꼼
- * ㄴ은 갑(홉스)의 입장에 부합한다.

ㄷ. 을: 재산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사회 계약 이후 발생한다.

- 을(로크)에 따르면 정치 사회를 수립하기 이전인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은 자연법에 따른 자연권을 지닌다.
 - 을(로크)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자연적 권리를 지니며, 이러한 권리를 더 잘 보호받기 위해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를 수립한다고 본다.
- * ㄷ은 을(로크)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ㄹ. 갑과 을: 자연 상태에서도 양도 불가능한 개인의 권리가 있다.

- 갑(홉스)에 대한 판단: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누구나 자기 보존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며 이러한 권리는 무제한적 권리라고 본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무제한적 권리로 인해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죽음의 공포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
 - 을(로크)에 대한 판단: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도 인간은 생명과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지닌다고 본다.
- * ㄹ은 갑(홉스)과 을(로크)의 입장에 모두 부합한다.

★ 정답은 ④ ㄱ, ㄴ, ㄹ이다.

오해 틀렸나?

↳ 선지에 대해 잘못 판단한 경우 홉스의 사회 계약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홉스가 말하는 '하나의 인격'이란 계약을 통해 탄생한 국가를 말한다. 홉스에 따르면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은 자기 보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연권을 양도하여 국가를 수립하는 계약을 맺는다. 이렇게 수립된 국가는 주권자로서 주권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인격으로서 국가가 행하는 모든 것은 곧 내가 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 따라서 주권자의 명령에 복종하는 일은 자발적이다.

* 홉스와 로크의 입장 비교 **★ 고난도** 핵심 개념

	홉스	로크
자연 상태	• 경쟁과 두려움(불신)이 자기 보존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 선악에 대한 공통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	• 자연법의 지배 아래 비교적 평화롭게 살아감 • 공통의 재판관이나 법률이 없어 자신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존할 수 있는 권리가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음
사회 계약의 목적	평화 유지를 통해 개인의 생명 보존	생명권, 재산권, 자유권 등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더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함

(가)의 한국 사상이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E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갑: 하늘의 달은 진짜 달이고 물속의 달은 그림자일 뿐이다. 성(性)이 이(理) 순수한 이(理) 기(氣)에 섞인 이(理) 기(氣) 가운데 있는 것은 물속의 달과 같으니, 기를 겸하여 말하고자 한다면 이미 성의 본연이 아니다.

을: 이는 기를 주재하며, 이는 도덕적 원리로서 순수하고 절대적인 것임 단서
그릇이 움직일 때 물이 움직이는 것은 기가 발할 때 이(理)가 타는 것이다. 그러나 물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이는 기는 발할 수 있음 무위(無爲)이며 기는 유위(有爲)인 것과 같다. 이는 발할 수 없음 단서

병: 병이 여왕벌을 호위하는 것을 충(忠)이라 하지 않는다. 벌은 정해진 정약용 마음 [定心]을 따랐을 뿐이기 때문이다. 반면 사람은 자주지권(自主之權)을 부여받아 선을 행하고자 하면 선을 행할 수 있다. 인간은 자주지권에 따라 스스로 선 또는 악을 행할 수 있음 단서

(나)

- ① A: 인(仁)은 기질이 섞이지 않은 이(理) 자체임을 간과한다.
갑(이황), 을(이이)의 공통점
- ② B: 인은 그 주된 바[所主]가 기에 있는 정(情)임을 간과한다.
성(性)
- ③ C: 인은 마음에 있는 성이 아니라 마음의 기호임을 간과한다.
실천을 통해 후천적으로 형성하는 덕
- ④ D: 인은 인간의 기질지성에 포함되어 있는 덕임을 간과한다.
을(이이) O, 병(정약용) X
- ⑤ E: 인은 자주지권의 발휘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임을 간과한다.
실천을 통해 형성하는 덕

단서+발상

- 단서
- 갑: 성(性)이 기(氣) 가운데 있는 것은 물속의 달과 같으니, 기를 겸하여 말하고자 한다면 이미 성의 본연이 아님
 - 을: 기가 발할 때 이(理)가 타는 것임, 이는 무위함
 - 병: 자주지권, 선을 행하고자 하면 선을 행할 수 있음
- 발상
- 갑은 이황, 을은 이이, 병은 정약용이다.
- KEY
- 이황과 이이는 단서설, 정약용은 단시설을 주장했다.

문제 풀이 순서

step 1 (가)의 갑, 을, 병 사상이 누구인지 파악한다.

1. 갑은 이황이다.
- 갑은 순선(純善)한 원리적 개념인 이는 존귀하고 선악의 가능성을 함께 지니고 있는 현상적 개념으로서의 기는 비천한 것이라고 본 이황이다.
2. 을은 이이이다.
- 을은 이는 발하는 까닭이고, 기는 발하는 것이므로 “기가 발하고 이가 기를 탄다.”라는 한 가지 길만이 옳다고 본 이이다.
3. 병은 정약용이다.
- 병은 행을 저지른 것은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자주지권에 따른 것이며, 스스로 악행을 택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악행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본 정약용이다.

step 2 선택지의 내용이 (나)의 A~E에 부합하는지 판단한다.

|선택지 분석|

① A: 인(仁)은 기질이 섞이지 않은 이(理) 자체임을 간과한다.

- 갑(이황)과 을(이이)은 모두 성(性)은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나뉘다고 본다. 그런데 본연지성은 사덕(인, 의, 예, 지)이자 이(理) 자체라고 본다.
- 따라서 갑(이황)과 을(이이)은 모두 인(仁)은 기질이 섞이지 않은 이(理) 자체라고 본다.
- * 갑(이황), 을(이이) 모두의 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에 들어갈 수 없다.

② B: 인은 그 주된 바[所主]가 기에 있는 정(情)임을 간과한다.

- 갑(이황)과 을(이이)은 모두 정은 사단과 칠정이라고 본다. 이때 사단은 측은지심(惻隱之心), 수오지심(羞惡之心), 사양지심(辭讓之心), 시비지심(是非之心)을 가리키며, 칠정은 기쁨, 노여움, 슬픔, 두려움, 사랑, 미움, 욕망을 가리킨다.
- 따라서 갑(이황)과 을(이이)은 모두 인이 정(情)이 아닌 성(性)이라고 본다.
- * 갑(이황), 을(이이) 모두의 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B에 들어갈 수 없다.

③ C: 인은 마음에 있는 성이 아니라 마음의 기호임을 간과한다.

- 병(정약용)은 사단을 인간이 타고난 선한 마음이라고 보았으며 사단의 ‘단’을 ‘실마리[緒(서)]’로 해석하는 성리학자들과 달리 ‘시작[始(시)]’으로 해석하였다.
- 병(정약용)은 사단을 실마리로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사덕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
- 따라서 병(정약용)은 인의예지의 사덕을 마음에 있는 성이라고 본 것이 아니라 사단을 바탕으로 실천을 통해 후천적으로 형성하는 덕이라고 본다.
- 병(정약용)은 ‘마음의 기호’가 곧 성이며, 인간의 성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경향성이라고 본다. 따라서 인은 마음의 기호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 * 병(정약용)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C에 들어갈 수 없다.

④ D: 인은 인간의 기질지성에 포함되어 있는 덕임을 간과한다.

- 을(이이)은 기질지성은 본연지성을 포함한다고 본다. 그런데 본연지성은 인의예지이므로 인은 기질지성에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 병(정약용)은 인간의 성을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기호라고 보며, 인은 사단을 시작으로 후천적인 실천을 통해 형성하는 것이라고 본다.
- * 을(이이)이 병(정약용)에게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비판이므로 D에 들어갈 수 있다.

⑤ E: 인은 자주지권의 발휘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임을 간과한다.

- 병(정약용)은 인을 성이 아니라고 본다.
- 병(정약용)은 인간은 선이나 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주지권(自主之權)을 부여받은 존재이며, 자주지권을 통해 스스로 인을 형성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인은 자주지권의 발휘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이 아니라고 본다.
- * 병(정약용)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E에 들어갈 수 없다.

★ 정답은 ④이다.

오해 틀렸나?

만일 ③을 정답으로 선택한 학생이 있다면 사덕에 대한 이황과 이이의 관점과 정약용의 관점 차이를 아직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황과 이이는 단서설, 정약용은 단시설을 주장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전체적인 개념을 꼼꼼하게 복습해야 한다.

다음에 주장한 한국 사상가의 입장에서 을과 병에게 공통으로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22 실시 3월 학평 15

오늘날 성인(聖人)이 되고자 해도 그럴 수 없는 이유는
하늘[天]을 이(理)로, 인(仁)을 만물을 낳는 이로 여기기 때문이다.
하늘은 만물을 주재하는 상제(上帝)이며, 인은 사람의 공(功)으로
성립하는 것이다. → 정약용 (단서)

- ① 순수한 기질을 타고나야만 성인이 될 수 있음을 모르고 있다.
정약용은 후천적 노력을 강조함
- ② 이는 우주의 궁극적 실체나 인간의 본성이 아님을 모르고 있다.
성리학자들은 이가 곧 인간의 본성임을 강조함
- ③ 인은 마음이 지니고 있는 일종의 기호(嗜好)임을 모르고 있다.
정약용은 인을 후천적으로 획득하는 덕으로 봄
- ④ 신독을 행해야 선악 선택의 능력[權]이 주어짐을 모르고 있다.
정약용에 따르면 인간은 선천적으로 선악을 선택하는 능력을 타고남
- ⑤ 형구의 기호는 하늘이 인간에게만 부여한 것임을 모르고 있다.
정약용에 따르면 형구의 기호는 인간과 동물 모두 가지고 있음

★ 이법적 실체인 이를 본성으로 보는 성리학에 대해 비판하고, 인간의 본성은
마음의 기호임을 강조한 실학자는 정약용이다. 주자를 계승한 이황과 이이의
본성이나 사덕에 대한 관점을 정약용과 비교하는 것이 이 문제 풀이의 핵심
KEY이다.

출제 개념: 정약용의 성기호설과 자주지권

| 문제 풀이 순서 |

step 1 제시문의 한국 사상가의 입장을 파악한다.

- 제시문에 따르면, 하늘은 곧 이(理)가 아니라 만물을 주재하는 상제이며,
인(仁)은 만물을 낳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공(功)으로 성립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한국 사상가는 실학자 정약용이다.

step 2 정약용과 을(이황), 병(이이)의 입장을 비교한다.

- 정약용은 성리학자인 이황과 이이의 이기론(理氣論)과 심성론(心性論) 등을
비판하고, 특히 주자의 성리학이 사단의 단(端)을 단서와 실마리 또는 끝의
의미로 해석하는 단서설(端緒說)을 통해 인의예지의 사덕이 선천적이라고
보는 점을 반박하며, 사단의 단을 근본과 시작의 의미로 읽는 단시설(端始說)을
주장하여 사덕은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 즉, 사단은 사덕의 실마리가 아니라 사덕을 실천하게 하는 시초이며, 따라서
인의예지의 사덕은 사단의 확충을 통해 획득되는 덕이라고 보았다.

| 선택지 분석 |

- ① 순수한 기질을 타고나야만 성인이 될 수 있음을 모르고 있다. (X)
- 정약용은 선악은 기질에 달려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 달려 있음을 강조한다.
참고로 이이 또한 기질을 교정(교기질)하는 수양을 통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따라서 순수한 기질을 타고나야만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반론이다.
- ② 이는 우주의 궁극적 실체나 인간의 본성이 아님을 모르고 있다. (O)
- 정약용은 이법적 실체인 이(理)를 본성으로 보는 성리학을 비판하고 새로운
심성론과 덕론을 제시하였다.
 - 즉, 이(理)는 기에 의지하는 속성이라고 보고, 인간만의 본성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기호라고 여겼으므로 적절한 반론이다.

③ 인은 마음이 지니고 있는 일종의 기호(嗜好)임을 모르고 있다. (X)

- 정약용에 따르면 인을 포함한 사덕은 인간 본성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형성되고 획득된다.
- 정약용이 기호라고 본 것은 인간의 본성 속에서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 정약용은 성은 곧 기호라고 보았지만, 인을 기호라고 본 것은 아니다. 주의
- 따라서 인이 마음이 지니고 있는 일종의 기호라는 것은 잘못된 반론이다.

④ 신독을 행해야 선악 선택의 능력[權]이 주어짐을 모르고 있다. (X)

- 정약용에 따르면 인간은 선천적으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선과 악을 선택하여
행할 수 있는 자율성을 지닌다.
- 따라서 정약용에게 신독이란, 상제가 감시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마음의 활동을
사사롭게 흐르지 않도록 성찰하며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도록 조심하고
경계하도록 하는 수양법을 의미한다. (골)
- 신독을 행해야 선악 선택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진술은 잘못된 반론이다.

⑤ 형구의 기호는 하늘이 인간에게만 부여한 것임을 모르고 있다. (X)

- 정약용에 따르면 인간은 영지의 기호와 형구의 기호를 가지고 태어난다.
- 영지의 기호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기호로서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의 기호이다.
- 형구의 기호는 인간과 동물 모두가 가지고 있는 기호로서 단 것을 좋아하고
쓴 것을 싫어하며 향기를 좋아하고 악취를 싫어하는 것과 같은 육체의 기호를
의미한다.
- 따라서 형구의 기호가 하늘이 인간에게만 부여한 것이라는 진술은 잘못된
반론이다.

★ 정답은 ②이다.



문제 풀이 Tip

- 개념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에 익숙해지자.

이 문제를 풀면서 이가 우주의 궁극적 실체라는 표현에 혼란을 느끼고 다른
선택지를 고른 경우가 많았다. 즉 이를 원리, 법칙 등으로만 이해한 것이다.
그러나 이법적 실체라는 표현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다양하게 표현된다.
따라서 기출 선택지와 제시문을 통해 이를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을 알아 두어야
한다.

* 정약용의 윤리 사상 ★ 1등급 핵심 개념

성기호설	성(性)은 마음의 기호일 뿐이다. 기호란 즐기고 좋아하는 것으로 심체를 따른 것과 형기에 의한 것이 있다.
상제천	상제천의 영명함은 사람의 마음을 관통하여 숨겨도 살피지 못하는 것이 없고 미미해도 밝히지 못하는 것이 없다.
자주지권	인간은 선(善)하고자 하면 선할 수 있고 악(惡)하고자 하면 악할 수 있다. 선악의 향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인간에게 자주지 권한이 있다.
단시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어진 이는 근심하지 않고 지혜로운 이는 미혹되지 않는다.” 하였다. 만약 타고난 천성에 본래부터 인(仁), 지(智)가 들어 있다면 모든 사람이 다 근심하지 않고 미혹되지 않을 것이니 어떻게 어진 이와 지혜로운 이를 구별할 수 있겠는가? (중략) 인의예지가 일을 행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알면 사람마다 열심히 노력하여 그 덕을 이루기를 바라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인간은 예지 세계의 성원인 동시에 감성 세계의 성원이기도 하다.
인간은 감각적 욕구에 영향을 받지만, 동시에 이성을 통해
자율적으로 도덕 법칙을 따를 수 있는 존재임
예지 세계에 속하는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기 의지의 원인성을
자유의 이념 아래 놓여 있는 것으로밖에 달리 생각할 수 없다.
인간은 스스로 수립한 도덕 법칙에 따라 행위 할 수 있는 자유를 지닌 존재임
이렇게 자유의 이념이 나를 예지 세계의 구성원으로 만들므로써
정언 명령이 가능해진다. → 칸트
단서 무조건적 명령

- ① 자유 의지는 도덕 법칙에 속박된 의지와는 다른 종류의 것이다.
같은
② 자기 행복의 추구는 직접적 의무는 아니지만 선의지를 증대한다.
증대하지 않음
③ 도덕 법칙에 적합한 준칙은 의욕 대상을 위해서 보편화된 것이다.
의욕 자체를 위해서
④ 이성을 지닌 완전한 존재에게도 정언 명령이 부과될 수밖에 없다.
신 도덕 법칙이 의무로 부과되지 않음
⑤ 의지의 자율은 감성 세계의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도 결정되지 않는다.
예지 세계

단서 + 발상

단서 예지 세계, 감성 세계, 정언 명령

발상 같은 칸트이다.

KEY 칸트는 선의지가 오직 어떤 행위가 옳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를 실천하려는 의지라고 본다.

문제 풀이 순서

step 1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가 누구인지 파악한다.

-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인간이 감각적 욕구의 영향을 받지만, 동시에 이성을 통해 스스로 도덕 법칙을 따를 수 있다고 보는 칸트이다.

step 2 ①~⑤ 선택지에 대한 칸트의 입장을 판단한다.

선택지 분석

- ① 자유 의지는 도덕 법칙에 속박된 의지와는 다른 종류의 것이다.
- 칸트는 자유 의지를 스스로 도덕 법칙에 따르려는 자율적 의지라고 본다.
 - 따라서 자유 의지가 곧 도덕 법칙에 속박된 의지이다. '속박된'이라는 말은 '지키는, 따르려는'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 * ①은 칸트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 ② 자기 행복의 추구는 직접적 의무는 아니지만 선의지를 증대한다.
- 칸트는 자기 행복의 추구는 경향성(감각적 욕구)을 추구하는 것이며, 자기 행복의 추구는 직접적 의무는 아니며 간접적으로는 의무라고 본다. 왜냐하면 심각한 불행과 고통은 도덕적 의무를 따르려는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칸트는 자기 행복의 추구가 동기가 된 행위는 도덕적 행위라 아니라고 본다.
 - 한편 칸트에 따르면 선의지는 오직 어떤 행위가 옳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를 실천하려는 의지이며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의지이다. 따라서 자기 행복의 추구는 선의지를 증대하지 않는다. 함정
 - * ②는 칸트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 도덕 법칙에 적합한 준칙은 의욕 대상을 위해서 보편화된 것이다.

- 칸트에 따르면 보편화될 수 있는 준칙은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도덕 법칙은 이성적 존재가 따라야 할 절대적이고 보편타당한 실천 법칙이다.
- 칸트는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나 의욕하는 대상에 있지 않고, 의지(의욕) 자체에 있다고 본다. 즉, 선의지는 도덕적 의무에 따라 행위 하려는 내적인 동기에서 그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위의 결과와 관계없이 의무에 따라 행위 하려는 의지 자체가 도덕적으로 선하다. 함정
- 따라서 칸트는 도덕 법칙에 적합한 준칙이 의욕 대상을 위해서 보편화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
- * ③은 칸트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④ 이성을 지닌 완전한 존재에게도 정언 명령이 부과될 수밖에 없다.

- 이성을 지닌 완전한 존재란 신을 말한다.
- 칸트에 따르면 신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존재이므로 도덕 법칙을 따르는 데 있어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따라서 도덕 법칙이 정언 명령이나 의무로 부과되지 않는다.
- 따라서 칸트는 인간에게는 도덕 법칙이 정언 명령으로 부과되지만 신에게는 도덕 법칙이 의무나 정언 명령으로 부과될 수 없다고 본다.
- * ④는 칸트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⑤ 의지의 자율은 감성 세계의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도 결정되지 않는다.

-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도덕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예지 세계의 성원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보편적 도덕 법칙을 따를 수 있다.
- 그러나 인간은 한편으로는 자연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감성 세계의 성원이기 때문에 감각적 욕구나 욕망을 추구하기도 한다.
- 칸트에 따르면 의지의 자율은 인간이 예지 세계의 성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며 의지의 자율은 감성 세계의 성원으로서 갖게 되는 감각적 욕구나 외부의 원인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만일 의지의 자율이 감성 세계의 영향을 받는다면 이는 자율이 아닌 타율이다. 함정
- 그러므로 의지의 자율성은 감성 세계의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도 결정되지 않는다.
- * ⑤는 칸트의 입장에 부합한다.

정답은 ⑤이다.

왜 틀렸나?

②번 선지의 경우 선의지의 의미가 오직 어떤 행위가 옳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를 실천하려는 의지임을 이해해야 선지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 따르면 선의지에서 비롯된 행위는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며, 자기 행복의 추구가 선의지를 증대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 감성 세계와 예지 세계 ★ 1등급 핵심 개념

구분	감성 세계	예지 세계
의미	인간이 감각과 경험을 통해 접하는 세계	인간의 이성으로만 파악할 수 있는 초월적인 세계
특징	경험적, 관찰 가능한 세계 자연 법칙에 의해 결정됨 감정, 욕구, 본능의 영향을 받음	순수 이성의 세계 도덕 법칙과 자유가 존재 자율적이고 초월적인 영역



최아람 | 2025 수능 응시 · 서울 광영고 졸

'자기 행복의 추구가 의무와 일치할 수도 있다.'는 선택지를 본 적이 있는데, ②가 그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는 걸 함정 고민하고 나서 깨달았어. 선의지는 그저 어떤 행위가 옳다는 이유만으로 따르려는 의지이고, 선의지를 의욕하고 증대시키는 것은 오직 '행위의 도덕성' 하나뿐이야.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이성적 존재는 목적의 나라에서 스스로 수립한 법칙에만,
그리고 자신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는 그 법칙에만
단서 인간은 이성적 존재로서 자율적으로 보편적 도덕 법칙을 수립하고 따라야 함
복종하도록 정해져 있다. 모든 가치를 결정하는 법칙의 수립
자체가 존엄하기 때문에, 스스로 법칙을 수립하는 자율은 이성적
인간은 도덕 법칙을 자율적으로 따를 수 있으므로 존엄한 존재임
본성이 존엄하다는 근거가 된다. → 칸트

- ① 이성적 존재는 자신의 본성에 의해 목적 자체가 된다.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해야 함
- ②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은 도덕적 행위의 동기가 된다.
의무 의식
- ③ 도덕 법칙에 맞는 행위가 곧 도덕적 행위인 것은 아니다.
자연적 경향성이 동기가 되면 도덕적 행위가 아님
- ④ 행위의 도덕성은 준칙의 보편화 가능성에 따라 판단된다.
보편화 가능한 준칙은 도덕 법칙이 됨
- ⑤ 선의지를 지닌 모든 존재에게 도덕 법칙은 의무로서 부과된다.
인간

단서+발상

- 단서** 보편적 법칙을 따라야 함, 이성적 본성은 존엄함
- 발상** 제시문의 사상가는 칸트이다.
- KEY** 칸트는 인간이 도덕 법칙을 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존엄한 존재이며 목적 자체가 된다고 본다.

| 문제 풀이 순서 |

step 1 제시문의 사상가가 누구인지 파악한다.

- 제시문의 사상가는 인간은 보편적 도덕 법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칸트이다.

step 2 ①~⑤ 선택지 대한 칸트의 입장을 판단한다.

| 선택지 분석 |

- ① 이성적 존재는 자신의 본성에 의해 목적 자체가 된다.
-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이성적 본성을 지닌 존재이며 자율적으로 도덕 법칙을 따를 수 있으므로 존엄한 존재이다.
 - 칸트는 존엄한 존재인 인간은 수단으로만 취급될 수 없으며 목적 자체가 된다고 본다. **풀이**
 - * ①은 칸트의 입장으로 옳다.
- ②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은 도덕적 행위의 동기가 된다.
- 칸트에 따르면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이 동기가 된 행위는 의무 의식이 동기가 된 행위이자 실천 이성의 명령을 따르는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만이 도덕적 행위가 된다.
 - 칸트는 도덕적 행위는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이 동기가 된 행위라고 본다.
 - * ②는 칸트의 입장으로 옳다.
- ③ 도덕 법칙에 맞는 행위가 곧 도덕적 행위인 것은 아니다.
- ‘도덕 법칙에 맞는 행위’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도덕 법칙에 대한 자발적 존중이 동기가 된 행위와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이 동기가 되었지만 도덕 법칙에 맞는 행위이다. 칸트에 따르면 전자는 도덕적 행위이지만 후자는 도덕적 가치가 없는 행위이다.

- 칸트는 도덕 법칙에 맞는 행위라도 동기를 검토하여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지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도덕 법칙에 맞는 행위라도 도덕적 행위가 아닌 경우가 있다는 입장이다.

* ③은 칸트의 입장으로 옳다.

④ 행위의 도덕성은 준칙의 보편화 가능성에 따라 판단된다.

- 칸트는 ‘네 의지의 준칙(격률)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 하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개인의 주관적 행위 원리인 준칙이 보편화 가능한 것인지 검토하여 보편 법칙이 될 수 있는 행위를 실천하라는 것이다.
- 칸트는 보편화 가능한 준칙에서 비롯된 행위는 도덕적 행위라고 본다.

* ④는 칸트의 입장으로 옳다.

⑤ 선의지를 지닌 모든 존재에게 도덕 법칙은 의무로서 부과된다.

- 칸트는 선의지를 지닌 존재가 인간과 신이라고 본다.
- 칸트에 따르면 신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존재이므로 도덕 법칙을 따르는 데 있어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따라서 도덕 법칙이 의무로 부과되지 않는다. **합정**
- 칸트에 따르면 도덕 법칙은 인간에게 ‘의무’의 법칙으로 다가온다. 인간은 본능적 욕구와 이성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인간의 의지가 도덕 법칙을 따르기 위해서는 본능적 욕구의 저항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 ⑤는 칸트의 입장으로 옳지 않다.

★ 정답은 ⑤이다.

오해 틀렸나?

①번 선지의 경우 칸트가 주장한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도록 행위 하라.’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묻는 선지에 불과하다.

또한 제시문에도 선지의 진위 판단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선지의 판단이 어려울 때는 기본적인 개념을 상기하거나, 제시문을 다시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자.

* 도덕 법칙에 대한 신과 인간의 차이점 ★ 1등급 핵심 개념

인간	신
- 인간은 도덕 법칙에 대한 의무감을 느끼고, 이를 통해 도덕적 행동을 해야 함. 의무감은 도덕적 행위의 동기가 됨. -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로, 도덕적 법칙을 따르려는 노력을 해야 함.	- 신에게는 의무감이 필요 없음. 신의 의지는 언제나 도덕적이기 때문에, 도덕 법칙에 대해 따로 의무감을 느낄 필요가 없음. - 신은 완전한 도덕적 존재로, 도덕 법칙과 필연적으로 일치하는 존재

* 칸트의 사상적 입장 ★ 1등급 핵심 개념

자유 의지	이성을 가진 존재만이 지닌 자율적 의지
선의지	- 오직 어떤 행위가 옳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를 실천하려는 의지 - 경향성이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천 이성에 따르려는 의지 - 그 자체로 선택한 것으로, 오직 선의지에 비롯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님
의무	-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으로 인해 도덕 법칙이 명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성 - 경향성의 유혹이 있어도 선의지를 따라야 한다는 의지

1회 01 정답 ③ * 노자의 사상 [정답률 88%]

| 선택지 분석 |

H 11 해설 참조

- ① 열반의 경지로 중생을 인도하는 삶은 석가모니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이다.
 ② 노자는 문명의 이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③ 노자는 어떤 일이든 왜곡이나 조작 없이 자연의 순리에 따라 처리하는 무위자연의 삶의 태도를 강조한다.
 ④ 성현의 예로 타고난 악한 성품을 교정할 것을 강조하는 것은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이다.
 ⑤ 노자는 감각적 경험이 아닌 도에 따라 사물을 인식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본다.

1회 02 정답 ③ * 맹자의 사상 [정답률 72%]

| 선택지 분석 |

C 02 해설 참조

- ① 맹자에 따르면 군주는 상벌보다는 인의로 다스리는 왕도정치를 펼쳐야 한다.
 ② 맹자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양지(良知)와 양능(良能)을 지니고 있다. **함정**
 ③ 맹자에 따르면 남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측은지심이며, 측은지심은 대인과 소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선천적으로 갖추어진 선한 마음이다.
 ④ 맹자에 따르면 군주가 백성을 고통에 빠뜨리고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면 그 군주를 교체할 수 있다.
 ⑤ 맹자에 따르면 **선비는 향산(恒産) 없이 항심(恒心)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일반 백성은 향산 없이 항심을 유지하기 어렵다.** **풀**

1회 03 정답 ④ * 플라톤의 이상 사회 [정답률 86%]

| 선택지 분석 |

Q 01 해설 참조

- ①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는 만물의 본질이며, 이데아 세계는 현실 세계의 근원이다. 또한 이데아 세계의 모든 이데아 중 최고의 이데아는 선의 이데아이다. 따라서 선의 이데아는 구성원의 합의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② 플라톤에 따르면 이상 사회의 구성원은 타고난 성향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한 가지 일을 담당한다. 따라서 이상 사회의 구성원은 자유롭게 자신의 계층과 직업을 고를 수 없다. **함정**
 ③ 플라톤에 따르면 통치자와 방위자는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재산을 공유한다. 그러나 생산자는 개인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며 사유 재산을 가질 수 있다.
 ④ 플라톤에 따르면 이상 사회인 정의로운 국가는 각 계층이 자신의 덕을 발휘하며 서로 조화를 이루는 사회이다.
 ⑤ 플라톤에 따르면 정의로운 국가의 통치자는 선의 이데아를 인식해야 하므로 철학자가 왕이 되거나 왕이 철학을 해야 한다. 즉 정치권력과 철학은 분리되지 않는다.

1회 04 정답 ② * 듀이의 사상 [정답률 82%]

| 보기 분석 |

P 42 해설 참조

- ㄱ. 듀이는 고정된 진리나 지식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식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지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본다.
 ㄴ. 듀이는 **지식이나 도덕은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도구주의를 주장하였다.** **풀**
 ㄷ. 듀이에 따르면 모든 지식은 유용한 결과가 예상되는 일종의 가설이므로 만일 어떤 지식이 실제적으로 유용한 결과를 산출했다면 그 지식은 가치를 갖는다.
 ㄹ. 듀이는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나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1회 05 정답 ⑤ * 에피쿠로스와 밀 [정답률 62%]

| 보기 분석 |

Q 28 해설 참조

- ㄱ. 에피쿠로스는 사회 전체의 쾌락이나 공익보다는 은둔의 삶 속에서 개인적이고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ㄴ.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사려 깊은 삶이란 이성을 발휘하는 삶이며 이성으로써 욕구를 분별하고 절제하는 검소한 삶을 살 때 진정한 쾌락을 누릴 수 있다.
 ㄷ.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평정심에 이르기 위해 공격적인 활동을 멀리해야 한다. 복잡한 인간관계는 집착과 다툼, 좌절과 분노 등 고통과 불안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함정**
 ㄹ. 밀에 따르면 지적 쾌락은 정신적 쾌락이며, **정신적 쾌락은 단순한 감각적 쾌락보다 양과 무관하게 더 가치가 있다.** **풀**

1회 06 정답 ④ * 원효와 지눌의 사상 [정답률 75%]

| 선택지 분석 |

G 11 해설 참조

- ① 갑(원효)은 모든 존재와 현상은 마음 [心] 이 만들어 낸다는 일체유심조를 주장하였다.
 ② 갑(원효)은 각 종파의 이론을 분리하여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하나인 근원에 따라 회통해야 한다는 원융회통을 주장하였다.
 ③ 을(지눌)은 돈오가 습기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도 가능하다고 본다. 지눌은 단박에 깨닫는 돈오 이후에도 습기(習氣)가 남아 있으므로 이를 차차 소멸시켜 나가는 점수가 필요하다고 본다.
 ④ 지눌은 선과 교가 서로 어긋나지 않음을 강조하며 깨달음의 완성을 위한 수행에 경전 공부도 필요하다고 본다.
 ⑤ 갑(원효)과 을(지눌)은 대승 불교의 입장에서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면서도 아래로는 중생 구제에 힘쓰는 보살행을 실천해야 한다고 본다.

1회 07 정답 ⑤ * 칸트와 흄의 사상 [정답률 39%]

| 보기 분석 |

Q 74 해설 참조

- ㄱ. 갑(칸트)은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행위임을 강조하고, 자연적 경향성에서 비롯된 행위는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갑(칸트)은 보편화 가능한 준칙에 맞는 행위라고 행위의 동기가 자연적 경향성에서 비롯되었다면 그 행위는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풀**
 ㄴ. 갑(칸트)에 따르면 의무란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으로 인한 행위의 필연성이다. 갑(칸트)에 따르면 도덕 법칙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외 없이 따라야 하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정언 명령이다. 따라서 도덕 법칙은 자율적 인간에게 의무의 형태로 부과된다.
 ㄷ. 을(흄)에 따르면 선악은 이성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행위나 품성을 바라볼 때 느끼는 시인(是認)의 감정이나 부인(否認)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즉 선과 악은 감정으로 구별되는 것이다. 을(흄)은 선과 악은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과 부인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본다.
 ㄹ. 갑(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본능적 욕구와 이성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인간의 의지가 도덕 법칙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성을 통해 본능적 욕구의 저항을 극복해야 한다. 따라서 이성은 도덕적 행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갑(칸트)은 감정에서 비롯된 행위는 도덕적 행위가 될 수는 없다고 보면서도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의 감정은 도덕적 행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함정**
 을(흄)은 감정이 도덕적 행위의 직접적인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흄은 이성도 도덕적 행위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이성은 도덕적 행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잘못된 믿음을 교정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함정**

1회 08 정답 ④ * 키케로와 아퀴나스 [정답률 53%]

| 선택지 분석 |

M 06 해설 참조

- ① 갑(키케로)은 마음의 평온함을 위해 비이성적 정념에 예측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 ② 갑(키케로)은 이성을 지닌 인간은 세계 시민으로서 인류의 공동선 실현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본다. **정답**
- ③ 을(아퀴나스)은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라는 자연법의 제1원리를 따라야 하며 이러한 원리는 인간의 자연적 성향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 ④ 을(아퀴나스)은 피조물인 모든 인간에게 영원법이 자연적 성향으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신앙을 갖지 않아도 이성을 통해 자연적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 ⑤ 갑(키케로)은 참된 행복은 이성에 따른 삶만으로도 성취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을(아퀴나스)은 참된 행복은 이성에 따른 삶만으로는 성취할 수 없으며 신의 은총을 통해 성취될 수 있다고 본다.

1회 09 정답 ① * 장자와 순자 [정답률 49%]

| 보기 분석 |

H 02 해설 참조

- ㉠ 갑(장자)은 인의와 같은 인위적인 규범이 사회 혼란의 원인임을 강조하고, 세속을 초월해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정신적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을(순자)은 악한 본성을 타고나는 인간이 성인이 제정한 인의와 같은 인위적인 규범을 익혀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야 사회 질서가 유지된다고 본다.
- ㉡ 갑(장자)은 예는 인위적으로 제정된 사회 규범이며 이는 사회 혼란의 원인이 될 뿐이라고 본다. 을(순자)은 예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교화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성인이 제정한 인위적인 규범이라고 본다.
- ㉢ 갑(장자)은 수양을 통해 절대적 자유의 경지에 이른 인간을 성인이라고 하였으며, 성인이 되기 위해 좌망과 심재의 수양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답**
- 을(순자)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악하며, 사람이 선하게 되는 것은 화성기위의 수양법을 실천한 결과라고 본다.
- ㉤ 을(순자)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 악하다고 본다. 따라서 을(순자)은 타고난 덕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타고난 덕을 교육과 수양을 통해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1회 10 정답 ② * 위정척사와 동학 [정답률 84%]

| 선택지 분석 |

I 09 해설 참조

- ① 갑(위정척사)은 서학의 수용을 반대하고 성리학적 신분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본다.
- ② 갑(위정척사)은 서양의 과학 기술과 천주교를 사악한 것으로 규정하고 수용을 반대한다.
- ③ 을(동학)은 남녀, 노소의 차별을 반대하고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사해 평등주의를 주장하였다. **정답**
- ④ 을(동학)은 후천 개벽 이후에 신분, 남녀, 노소의 차별이 모두 사라진 평등한 이상 사회가 실현된다고 본다.
- ⑤ 갑(위정척사)은 유교적 가치를 참된 도라고 보았으며 이를 통해 사악한 서학의 침투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을(동학)은 서학을 반대하고 유불도를 융합한 동학의 가르침을 참된 도라고 보았으며, 동학의 보국안민의 가르침을 통해 국난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1회 11 정답 ② * 아리스토텔레스 [정답률 33%]

| 선택지 분석 |

K 41 해설 참조

- ①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을 '덕과 악덕 사이'가 아니라 '악덕과 악덕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정답**
-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덕(탁월성)을 지나침과 모자람의 중간 상태라고 본다. 용기는 무모함과 비겁함의 양극단 사이에 있는 덕이라고 본다.
-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품성적 덕은 중용의 습관화, 즉 실천을 통해 갖출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적인 덕은 이론적 학습과 탐구, 즉 교육을 통해 갖출 수 있다고 본다.
- ④ 아리스토텔레스는 선에 대한 앎을 갖춘 사람도 의지의 나약함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악을 행할 수 있다고 본다.
- 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자체로 악한 행동이나 감정이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질투와 절도 같은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질투와 절도 같은 그 자체로 악한 행동이나 감정은 지나침이나 모자람이 존재하지 않으며 중용도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 **정답**

1회 12 정답 ③ * 키르케고르와 사르트르 ... [정답률 85%]

| 선택지 분석 |

P 04 해설 참조

- ① 갑(키르케고르)에 따르면 윤리적 실천 단계에서 인간은 윤리 규범을 어기고 죄를 지을 가능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유한성을 자각하면서 다시 절망에 빠지게 된다.
- ② 갑(키르케고르)에 따르면 실존적 상황에서 신 앞에 홀로 서서 신과 하나가 되면 불안과 절망을 극복하고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
- ③ 을(사르트르)에 따르면 인간은 신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정답**
- ④ 을(사르트르)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타고난 본질이나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의 주체적인 선택을 통해 자신을 스스로 형성해 나가야 한다.
- ⑤ 갑(키르케고르), 을(사르트르)과 같은 실존주의 사상가들은 객관적 진리가 아닌 주체적인 선택과 결단을 통해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1회 13 정답 ② * 프로타고라스와 소크라테스 [정답률 85%]

| 보기 분석 |

정답

J 03 해설 참조

- ㉠ 갑(프로타고라스)은 윤리적 상대주의의 관점에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는 존재하지 않으며 사물의 가치는 각자의 경험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 ㉡ 을(소크라테스)은 절대적 진리는 존재하며 인간은 이성을 통해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
- ㉢ 을(소크라테스)은 덕이 무엇인지 알면 유덕하게 행동할 수 있으며, 유덕한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지덕복 합일설을 주장하였다.
- ㉤ 갑(프로타고라스)과 을(소크라테스)은 인간과 사회를 탐구 대상으로 삼았다.

1회 14 정답 ① * 주희와 왕수인의 사상 .. [정답률 63%]

| 보기 분석 |

D 08 해설 참조

- ㉠ 갑(주희)은 성인이 되기 위한 수양 방법으로 거경궁리를 제시한다. 거경궁리란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앎을 지극히 하는 것이다.
- ㉡ 왕수인은 마음이 곧 이치이며 마음 밖에는 이치가 없다고 보고, 격물치지를 '내 마음의 양지를 개별 사물에서 실현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래서 그는 내 마음의 양지를 각각의 사물에 실현하게 되면 각각의 사물이 모두 그 이치를 얻게 된다고 본다.
- ㉢ 을(왕수인)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천리(天理)로서의 양지를 지니고 있으며, 이 양지를 자각하고 실천할 수 있다. 따라서 효를 행하려면 양지를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발휘해야 하며, 효의 이치를 배우고 익힐 필요가 없다.
- ㉤ 격물치지에 대해 갑(주희)은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탐구하여 나의 앎을 극진히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을(왕수인)은 마음이 곧 이치이며 마음 밖에는 이치가 없다고 보고, 격물치지를 '내 마음의 양지를 개별 사물에서 실현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차 례 [꼭 출제되는 중요 개념]

★ 1등급 대비

I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

01. 공자, 맹자, 순자 [고난도 대비]	02
★ 02. 성리학의 양명학 [1등급 대비]	06
★ 03. 이황, 이이, 정약옹 [1등급 대비]	10
04. 초기 불교와 대승 불교	16
05. 원효, 의천, 지눌	18
06. 노자와 장자의 도가 사상	20

II 서양 윤리 사상

* 서양 사상의 계보 [1등급 대비 특강]	22
07.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고난도 대비]	24
08. 쾌락주의와 금욕주의	28
09. 교부 철학과 스콜라 철학	30
10. 합리론과 경험론 [고난도 대비]	32
★ 11. 공리주의와 칸트 [1등급 대비]	34
12. 실존주의와 실용주의	38

III 사회사상

13.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고난도 대비]	40
14. 사회 계약론과 민주주의 [고난도 대비]	42
15. 자본주의	44
16. 평화	46

06 노자, 장자의 도가 사상

★ 노자와 장자의 사상

성인(聖人)은 억지로 일을
꾸미지 말고, 욕심을 내지
않아야 한다네.



노자

맞습니다. 아무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마음을 자유로이 노닐게
하여 자연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장자

	노자	장자
도(道)	• 천지 만물을 낳는 근원, 자연을 생성·운행하는 원리 • 인간의 감각을 초월하여 존재 • 상반상성: 서로 반대되기에 서로 성립될 수 있음	• 세상 만물에 깃들어 있음 • 도의 관점에서 만물은 모두 평등 → 우열, 미추, 선악 등을 가릴 수 없음
이상적 경지	• 무위자연: 인위를 행하지 않고 자연에 따르는 것 • 상선약수: 최상의 선은 물과 같음, 겸허·부쟁의 덕 • 성인(聖人): 이상적 인간상	• 소요유: '도(道)'를 깨닫고 인위에서 벗어난 정신적 자유의 경지 • 제물: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인식하는 것 • 물아일체: 자연 만물과 하나 되는 경지
주요 사상	• 소국 과민(小國寡民): 백성들이 문명의 발달을 추구하지 않으며 소박하고 자족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회 • 무위의 정치: 다스림이 없는 다스림	• 좌망: 조용히 앉아서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 • 심재: 잡념을 없애고 마음을 비움

★ 문제 풀이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에서 노자와 장자의 사상을 구분하기 위해 애를 쓰는데, 도가 사상의 경우 교육과정 내에서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사상가를 굳이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어, 각 사상가만의 핵심 키워드들을 잘 기억해두면 사상가를 찾는 데 도움이 될거야.



나만의 비법 정리

소크라테스 선생, 내가
보고 느끼는 것이 다입니다.
더 바라는 게 있나요?



소피스트

당신네들이 주장하는 바는
윤리적 회의주의에 빠지기
쉬운 궤변에 불과합니다.



소크라테스

★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

구분	소피스트(상대주의)	소크라테스(보편주의)
특징	- 지식과 윤리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임 - 감각적 경험과 유용성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됨	- 지식과 윤리는 시대나 사회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보편적인 것임 - 인간의 보편적인 이성이 가치판단의 기준이 됨 - 선, 이성적·정신적 가치를 중시함
공통점	“인간은 모든 것의 척도이다” - 프로타고라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 트라시마코스 “아무것도 없다. 만약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분명하게 말할 수 없다” - 고르기아스	- 주지주의: 덕은 지식으로부터 나옴 - 지행합일: 덕 있는 자는 반드시 실천함 - 지덕복합일설: 덕을 아는 자 = 덕 있는 자 = 행복한 자 - 산파술: 대화를 통해 스스로의 무지를 자각하게 함
영향	경험주의, 공리주의	이성주의, 관념론
평가	-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회에서의 다양한 가치를 수용할 수 있음 - 윤리적 회의주의에 빠질 수 있음	- 인간이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현실을 설명하거나 비판할 수 있음 - 다양한 가치를 확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공통점	철학의 주제를 자연에서 인간으로 삼음	

★ 문제 풀이

보통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를 비교하는 문제도 종종 나와! 소크라테스는 지덕복합일설로 덕을 아는 자는 자연스럽게 덕을 행한다[주지주의]고 주장하는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주지주의+주의주의]고 했다는 점을 들어 두 사상가를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뒤!

제자야, 이 세계는 감각으로 파악되는 현실계와 이성으로 파악되는 이데아계로 나뉘어져 있다. 대상의 실체는 이데아계에 있지.



플라톤 (이상주의)

스승님, 뜬 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 세계는 수많은, 개별적인 실체로 이루어진 현상계 뿐입니다. 좋음도 현실에서 이뤄져야 하지요.



아리스토텔레스 (현실주의)

★ 플라톤이 말하는 “탁월한 자 (이상적인 인간)”

“지혜, 용기, 절제의 3가지 덕이 조화를 이루어 정의로운 것이 가장 탁월하다!”

영혼 (인간)	4 주덕	국가
이성	지혜	통치자
용기(기개)	용기	방위자
욕구	절제	생산자
↓ (조화)	↓ (조화)	↓ (조화)
정의로운 사람	정의	정의로운 국가

★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탁월한 자”

“잘 앎을 수 있게 하는 의자 = 좋은(탁월한) 의자. 이성적 기능을 잘 발휘하는 인간 = 좋은(탁월한) 인간
 “존재가 지닌 자신의 **기능**을 가장 잘 발휘하는 것이 가장 탁월한 것이다!”

이성적 기능을 잘 발휘하게 되면? → “지성적 덕, 품성적 덕”의 특성이 생긴다!

지성적 덕	품성적 덕
- 이성적 기능이 탁월할 때 형성 - 교육에 의해 형성 - 실천적 지혜, 철학적 지혜	- 이성의 명령에 따라 비이성적인 부분이 실천할 때 형성 - 실천적 지혜를 토대로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 형성 - 중용

★ 문제 풀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중에서 **실천적 지혜**는 **지성적 덕**이라는 것을 명심해! ‘실천’이라고 해서 무조건 품성적 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초점은 “지혜”에 있는 거야!



나만의 비법 정리

어떤 행위가 더 가치 있는지 판단할 때 우리는 일곱 가지 기준을 가지고 측정한 쾌락의 양을 비교해야 합니다.



벤담

쾌락의 양으로만 행위를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어떤 행위를 평가할 때에는 쾌락의 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밀

★ 양적 공리주의와 질적 공리주의

구분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밀의 질적 공리주의
공리의 원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도덕적 행동	고통의 양을 최소화하고 쾌락의 양을 최대화하는 행위	
쾌락	- 모든 쾌락은 양적인 차이만 있을 뿐 질적인 차이는 없음 - 쾌락은 행복을 초래하고 고통은 불행 초래	- 쾌락에는 양적인 차이 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도 있음 - 타인의 행복에 대해 느끼는 쾌락도 높은 수준의 쾌락임 - 높은 수준의 쾌락: 장기적, 계속적, 점진적

★ 현대 공리주의

행위 공리주의	- 공리의 원리를 개별 행위에 직접 적용하여 최대 행복을 산출하는 행위가 옳은 행위라고 보는 공리주의 - 일반적으로 고전적 공리주의는 행위 공리주의적인 특징을 지님 - 개별 행위가 가져오는 공리를 계산하기 어렵고, 도덕적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규칙 공리주의	- 공리의 원리를 개별 행위가 아닌 행위의 규칙에 적용함 - 행위의 옳고 그름은 최대 행복을 산출하는 규칙과의 일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봄 - 공리의 원리에 따라 채택된 규칙은 상식적 도덕이나 사회의 전통, 도덕적 직관 등과 일치할 가능성이 큼
선호 공리주의	- 행복을 쾌락으로 한정한 고전적 공리주의와 달리 더 포괄적인 의미인 선호(選好)를 통해 행복을 설명함 - 행위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선호를 최대한 만족시키는 행위가 옳다고 봄

행위의 옳고 그름은 결과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의무 의식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으로 옳습니다.



칸트

★ 칸트 윤리 사상

도덕 법칙 강조	• 인간의 마음에는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도덕 법칙이 존재함 • 도덕 법칙은 우리 안의 실천 이성 에 의해 세워짐
인간의 자율성과 존엄성 강조	• 인간은 본능적 욕구를 극복하고 실천 이성이 부과하는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자율적 존재인 • 의무이기 때문에 행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님(선의지에 따른 행위 = 도덕적 행위)
도덕 법칙을 정언 명령 형태로 제시	• 정언 명령: '무조건 ~하라'와 같은 무조건적인 명령 • 대표적인 도덕 법칙 ① 보편주의: "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 하라." ② 인격주의: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도록 행위 하라." ③ 자유주의: "의지가 자기 준칙에 의해 스스로를 동시에 보편적 법칙을 수립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

★ 현대 칸트주의: 로스의 조건부 의무론

조건부 의무	• 어떤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머릿 속에 떠오르는 '아무래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직관적 의무 • 정언 명령보다는 느슨하게 적용되는 원칙으로, 절대적으로 보이는 의무도 인간의 직관과 상식에 따라 유보될 수 있음
조건부 의무의 적용	• 하나의 의무는 또 다른 의무와 갈등하기 전까지 우리를 잠정적으로 구속함 • 의무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상대적으로 약한 의무는 유보되고 강한 의무가 우리의 실제적인 의무가 됨
의의	• 도덕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줌 • 인권 사상의 형성 및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

★ 문제 풀이

훔은 앞 단원에 등장하는 사상가이긴 하지만, 공리주의 사상가들과의 비교, 그리고 칸트와 비교하는 문제로 나올 수 있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리주의의 특징과 칸트주의의 특징을 모두 잘 알고 있어야겠지?



나만의 비법 정리